

1. 다음 중 '음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뜻을 지닌 최소의 단위이다.
- ②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변하기도 한다.
- ③ 국어의 음운 현상은 자연스럽게만 규칙적이지는 않다.
- ④ 국어의 음운은 자음 21개, 모음 19개로 총 40개이다.
- 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음운의 변동을 쉽게 의식할 수 있다.

2. 다음 중 겹받침의 발음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넓다 ② 훤다 ③ 맑게 ④ 밝다 ⑤ 뚱고

3.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 ① 이 약은 두통에 효과가 좋다.
- ②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겼다.
- ③ 옛날 결혼식에는 국수를 먹었다.
- ④ 날이 갈수록 그리움이 커져갔다.
- ⑤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4. 다음 중 음운의 변동 현상이 다른 하나는?

- ① 국물에 건더기가 하나도 없다.
- ② 그 가게는 내게 맞는 옷이 없다.
- ③ 여름에는 냉면을 먹는 사람이 많다.
- ④ 달력을 키우기 위해 밤에 훈련한다.
- ⑤ 자꾸 돈을 빌려 달라 하면 곤란하다.

5. 다음 중 종성에 위치할 때 발음이 다른 하나는?

- ① 入 ② ㅈ ③ ㅊ ④ ㅌ ⑤ ㅍ

6. 다음 단어들에 나타나는 공통된 음운 현상은?

<보기>

긱병, 냇물, 치과(齒科), 곳간(庫間)

- ① 논일 ② 낙원 ③ 연말 ④ 꽃밭 ⑤ 옷장

7. 다음 중 단어의 발음과 음운 변동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 ① 좋아서 [조아서] → 탈락 현상
- ② 붙여 [부쳐] → 구개음화, 모음축약
- ③ 나뭇가지 [나무까지] → 사잇소리 현상
- ④ 노랗다 [노란따] →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
- ⑤ 싹뿔줄 [싹뿔쥬] → 음절의 끝소리 규칙, 경음화

8. 다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음운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 구개음화는 '(,)'이 '()'나 반모음 [j] 앞에서 구개음 '(,)'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9. 다음 중 음운의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 ① 찬바람이 부니 온몸이 떨린다.
- ② 빌려 온 우산을 잃어 버렸다.
- ③ 물안개가 이는 호수가 아름답다.
- ④ 우물에서 물을 퍼서 빨래를 한다.
- ⑤ 하늘을 나는 것들은 날개가 있다.

25. <보기>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음운 변동의 양상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좋다 ㉡ 빛나지 ㉢ 낮이 ㉣ 젖고 ㉤ 들었던

- ① ㉠ - 축약 ② ㉡ - 교체 ③ ㉢ - 교체
 ④ ㉣ - 탈락 ⑤ ㉤ - 교체

26. '굳이'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보기>와 같이 할 때, 빈 칸에 들어갈 음운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자음 (), ()이/가 'ㅣ'모음을 만나 (), ()로/으로 변하는 현상

27. 다음 중 표준발음법에 맞게 발음한 것은?

- ① 엷고 [엷꼬] 예쁜 구름이 떠간다.
 ② 홀이불 [호디불] 로는 추울 것 같다.
 ③ 무분별한 공권력 [공뀐녁] 행사에 반대한다.
 ④ 효과 [효과] 가 뚜렷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고가도로(高架道路) [고까도로] 를 이용하세요.

28. 다음 중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 ① 오늘 점심은 국수를 먹었다.
 ② 나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졌다.
 ③ 눈을 감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④ 시험공부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공부해야 해.
 ⑤ 계곡에 갔더니 시원한 물소리가 나를 반겼다.

29. 밑줄 친 낱말을 발음했을 때, 음운 현상이 다른 것은?

- ① 여기 와서 이것 좀 봐.
 ② 빨갳게 핀 장미를 보라.
 ③ 모두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④ 비행사는 낙하산을 타고 탈출했다.
 ⑤ 나는 시력이 좋아서 멀리까지 보인다.

30. 다음 낱말의 음운 현상과 그 예가 모두 적절한 것은?

낱말	음운 현상	예
① 붙여	구개음화	견디다
② 돕고	경음화	안기다
③ 뺏는다	비음화	불놀이
④ 광한루	유음화	한라산
⑤ 깨끗하게	탈락	아드님

31.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우리말은 자음이 음절 끝소리에 올 때 실제 발음될 수 있는 소리는 (㉠)의 일곱 개뿐이다. 그 외의 받침은 일곱 개 중 하나로 바꾸어 발음한다.

예를 들면 '남, 날, 낮, 낫, 낫, 낫, 낱'은 모두 (㉡)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ㄷ, ㅌ, ㅅ, ㅆ, ㅈ, ㅊ, ㅎ'의 대표음은 (㉢)이다.

32.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우리말의 모음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이를 모음 조화라 한다.

- ① 가지 않았다.
 ② 이리로 들어와.
 ③ 그녀를 보았다.
 ④ 지갑을 주웠다.
 ⑤ 꽃이 아름다웠다.

33.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②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 ③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
- ④ 체언에서의 자음 축약은 국어와는 달리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⑤ ‘ㄹ’은 모음 앞에서 ‘r’로 자음 앞에서는 ‘l’로 적는다.

34. 다음 중 한국 음식과 로마자 표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불고기 : pulgogi ② 삼겹살 : samkyeobsal
- ③ 비빔밥 : bibimbap ④ 김치 : kimchi
- ⑤ 빈대떡 : bindetteuk

35. 다음의 외래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 ① fighting : 화이팅 ② dollar : 달러
- ③ talent : 탈렌트 ④ pizza : 피자
- ⑤ duet : 듀엣

36. <보기>는 우리말에 없는 대표적인 외래어 음운들이다. 외래어 표기법에서 각각 어떻게 쓰는지 순서대로 적으시오.

<보기>

[f, v, θ, ð, z, ʃ, ʌ, ɔ, ɔ̃]

37.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에서 모음의 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ㅜ : eo ② ㅡ : eu ③ ㅜ : ou

④ ㅞ : ye

⑤ ㅝ : wae

38. 다음 중 도로 안내 표지판에서 로마자가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Cheongkyecheon : 청계천
- ② Euljiro 1-ga : 을지로 1가
- ③ Gangbyeonbukro : 강변북로
- ④ Gangnam-daero : 강남대로
- ⑤ Youido : 여의도

39.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열음 표기에서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 ② ‘ㅈ, ㅊ’소리 뒤에는 이중 모음을 적지 않는다.
- ③ [t]는 받침으로 적을 때 ‘ㄷ’으로 적지 않고 ‘ㅌ’으로 적는다.
- ④ 이중 모음 [ai], [au], [ei], [oi], [auə]는 각 단모음의 발음을 살려서 적는다.
- ⑤ 영어의 [l] 발음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받침 ‘ㄹ’로 적으며, 모음 앞에서는 ‘ㄹㄹ’로 적는다.

40. 다음 중 외래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 ① 그 음식점은 서비스가 엉망이다.
- ② 오늘 카페에서 동창회 모임이 있다.
- ③ 아침 버스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탄다.
- ④ 우리 회사의 보안은 최고 시스템을 갖췄다.
- ⑤ 텔레비전이 오래 되어서 새 것으로 바꿨다.

41. 다음 지명의 로마자 표기가 잘못된 것은?

- ① 부산 : Busan ② 인천 : Incheon
- ③ 광주 : Gwangju ④ 수원 : Sueon
- ⑤ 울산 : Ulsan

42. 다음 <보기>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표기한 것은?

<보기>
세종대왕

- ① Sejongdaewang ② Seojongdauwang
- ③ Sejongdauwang ④ Seochongdaewang
- ⑤ Sechongdaewang

43. 다음 중 외래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우리말처럼 쓰이고 있는 말이다.
- ② 외국어처럼 쉽게 순화시킬 수 있다.
- ③ 일상에서 우리말과 쉽게 구별 된다.
- ④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적을 수 있다.
- ⑤ 발음에 비해 표기는 혼란스럽지 않다.

44. 다음 학생들의 대화에서 외래어를 잘못 사용하는 있는 것은?

- ① 재범 : 내일 미술 준비물이 스펀지 맞지?
- ② 소라 : 브러쉬도 가져가야 해.
- ③ 범수 : 난 오늘 스케줄이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큰일이네.
- ④ 연우 : 도넛이라도 사 주면 내가 대신 준비해줄지.
- ⑤ 도현 : 서비스로 콜라도 사줄게. 그럼 부탁해.

45.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는 ‘i’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 ② ‘ㄱ, ㄷ, ㅂ’은 모음 앞이나 어말에서 ‘k, t, p’로 적는다.
- ③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 ④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불임표(-) 없이 붙여 쓴다.
- ⑤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불임표

(-)를 쓸 수 있다.

46. 다음 <보기>를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쓰시오.

<보기>
대한민국 독도

47. 다음 중 잘못 쓰인 외래어를 바르게 고친 것은?

- ① 주니어 → 유니어 ② 패밀리 → 웨밀리
- ③ 케익 → 케이크 ④ 플루트 → 플룻
- ⑤ 재즈 → 쟈즈

48. 외래어 표기법을 마련한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순우리말의 위상이 낮아 졌기 때문에
- ② 외국인들이 쉽게 알아보기 하기 위해서
- ③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기가 어려워져서
- ④ 우리의 언어생활에 걸맞게 표기하기 위하여
- ⑤ 외국인들의 한글 학습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49. <보기>의 외래어 표기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규칙을 쓰시오.

<보기>

banana : 바나나 camera : 카메라 radio : 라디오

50. <보기>의 규정에 맞게 표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보기>

영어의 [p, t, k] 는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 오면 받침 ‘ㅂ, ㅌ, ㅋ’으로 적거나, ‘-’를 붙여 ‘프, 트, 크’로 적는다. 어말에 올 때 단모음이면 받침으로 적고, 이중 모음이나 장모음 다음이면 ‘-’를 붙여서 적는다.

- ① gap - 갭 ② act - 액트 ③ flute - 플룻

- ④ robot - 로봇 ⑤ Internet - 인터넷

51. 밑줄 친 낱말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은 것은?

- ①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② 상점 밖에서 팬플릿을 나눠주었다.
 ③ 국제 영화제가 할리우드에서 열린다.
 ④ 운전할 때는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한다.
 ⑤ 연예인 미니어치의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52. <보기>의 내용과 어울리는 표기 규정을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슈퍼 주니어(o)/쥬니어(x) 오빠들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 목욕 후 타월(o)/타올(x)을 꼭 건조하세요.
 ㉢ 나는 그런 타입(o)/타입(x)의 사람들을 좋아한다.

㉠ 받침의 표기는 [t] 를 제외하고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를 적어야 한다.
 ㉡ ‘ㅈ, ㅊ’ 뒤에는 이중 모음을 적지 않는다.
 ㉢ 유성 파열음은 거센 소리 ‘ㅍ, ㅌ, ㅋ’으로 적는다.
 ㉣ 이미 굳어져 쓰이고 있는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여 표기한다.
 ㉤ 이중 모음 [ou] 는 ‘오’로, [auə] 는 ‘아워’로 적는다.

- ㉠ ㉡ ㉢
 ① b e a
 ② b e c
 ③ d a c
 ④ d a e
 ⑤ e d a

53.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로마자 표기법

	전자법	전음법
표기 방법	한글 표기 그대로 로마자로 옮겨 적는 것	우리말을 발음 되는 대로 로마자로 적는 것
예	한라산 → Hanrasan	한라산 → ㉠
장점	㉡	㉢
단점	㉣	㉤

- ① ㉠ - Hallasan
 ② ㉡ - 한글로 복원하기가 쉽다.
 ③ ㉢ - 외국인들이 우리말대로 발음하기가 편하다.
 ④ ㉣ - 표기에 혼동이 올 수 있다.
 ⑤ ㉤ - 한글 철자를 알기가 어렵다.

54. <보기>를 활용하여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thrill - 스릴(o), 트릴(x)
 ㉡ dollar - 달러(o), 딸러(x)
 ㉢ club - 클럽(o), 크럽(x)
 ㉣ pizza - 피자(o), 핏자(x)
 ㉤ robot - 로봇(o), 로보트(x)

- ① ㉠ - 외국어에서 된소리와 예사소리를 구별하지 않으면 경우으로 적지 않는다.
 ② ㉡ - 유성 파열음은 예사소리 ‘ㄷ, ㄸ, ㄱ’으로 적는다.
 ③ ㉢ - [l] 발음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받침 ‘ㄹ’로 적고, 모음 앞에서는 ‘ㄹㄹ’로 적는다.
 ④ ㉣ - 이미 굳어져 쓰이고 있는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여 표기한다.
 ⑤ ㉤ - [t] 소리가 어말에 올 때 단모음 다음이면 받침으로 적는다.

55. <보기>의 주장에 대해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 이유를 고려하여 비판하시오.

<보기>

‘orange’, ‘banana’를 ‘오렌지’, ‘바나나’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기한 것을 읽으면 영어 사용자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영어 발음에 가깝게 적어야 한다.

56. <보기>의 규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로마자 표기법에서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나, 인명의 각 음절 사이, ‘도, 시, 군, 구’ 등의 행정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넣을 수 있다. 다만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이때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① 중앙 - Jung-ang
- ② 남원시 - Namwon-si
- ③ 해운대 - Hae-undae
- ④ 대관령 - Daegwallyeong
- ⑤ 전라북도 - Jeonrapuk-tto

57. <보기>의 시험에서 학생이 얻은 점수로 적절한 것은?

<보기>

* 표기에 맞게 쓰시오. (문항당 2점)

- 1. badge : 빼지
- 2. massage : 마사지
- 3. carol : 캐롤
- 4. fighting : 파이팅
- 5. accessory : 악세서리

- ① 2점 ② 4점 ③ 6점 ④ 8점 ⑤ 10점

58. <보기>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외래어 표기법의 세부 규정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보기>

초콜릿→초콜릿 텔레비전→텔레비전
레이저→레이저 쥬스→주스

59. 밑줄 친 낱말 중 외래어 표기가 적절한 것은?

- ① 그녀는 올해 초 데뷰를 했다.
- ② 나는 영화 스텝으로 취직을 했다.
- ③ 선생님은 나의 훌륭한 카운슬러이다.

- ④ 요즘에는 재미있는 코메디 프로그가 없다.
- ⑤ 숙제를 하려고 포탈 사이트에 접속했다.

60. <보기>의 글을 쓴 친구가 비판하고 있는 로마자 표기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보기>

'Seoraksan'을 외국인 친구에게 보여주고 우리말로 옮겨 적으라고 했더니 '서락산'이 되었다. 이러한 로마자 표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 ① 백마 - Baengma
- ② 꽃잎 - kkonnip
- ③ 학문 - hangmun
- ④ 벚꽃 - beotkkot
- ⑤ 학여울 - Hagyeoul

61.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것을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talent [tælənt]'는 본래 발음을 참고하면 '탤런트'로 적어야 한다.

- ㉠ 영어의 [l] 발음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받침 'ㄹ'로, 모음 앞에서는 'ㄹㄹ'로 적는다.
- ㉡ [æ] 와 [ʌ] 는 '어'로, [æ] 는 '애'로, [ɔ] 와 [o] 는 '오'로 적는다.
- ㉢ [t] 는 받침으로 적을 때 'ㄷ'으로 적지 않고 'ㅌ'으로 적는다.
- ㉣ 무성 파열음 [p, t, k] 는 거센소리 'ㅍ, ㅌ, ㅋ'으로 적는다.
- ㉤ 이미 굳어져 쓰이고 있는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여 표기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62. <보기>의 ㉠~㉣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영어의 [l] 발음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받침으로 적으며, 모음 앞에서는 'ㄹㄹ'로 적는다.

- ㉠ 이중 모음 [ou] 는 '오'로, [auə] 는 '아워'로 적는다.
- ㉡ 받침의 표기는 실제 발음되는 소리들을 적어야 한다.

- ① ㉠ blouse - 블라우스
- ② ㉠ alcohol - 알코올
- ③ ㉡ window - 윈도우
- ④ ㉡ shower - 샤워
- ⑤ ㉡ robot - 로봇

63. <보기>의 광고문에서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보기>

㉠프로포즈는 이 곳에서!

안녕하세요? 프로포즈 전문 ㉡숍 '5월의 ㉢벤취'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저희 매장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케이크를 선물로 증정합니다. 또한 저희 매장의 자랑인 신부 ㉤컨셉의 촬영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64. 외국인 친구에게 소개할 곳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축석루 - Chokseongnu
- ② 압구정 - Apkkujeong
- ③ 불국사 - Bulguksa
- ④ 선죽교 - Seonjukgyo
- ⑤ 극락전 - Geungnakjeon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는 말 몇 마디 사귀지 않아서 곧 못난이란 것이 드러났다. 이 못난이는 성북동의 산들보다, 물들보다, 조그만 지름길들보다, 더 나에게 성북동이 시골이란 느낌을 풍겨 주었다.

서울이라고 못난이가 없을 리야 없겠지만 대처에서는 못난이들이 거리에 나와 행세를 하지 못하고, 시골에선 아무리 못난이라도 마음 놓고 나와 다니는 때문인지, 못난이는 시골에만 있는 것처럼 흔히 시골에서 잘 눈에 뜨인다. 그리고 또 흔히 그는 태고 때 사람처럼 그 우둔하면서도 천진스런 눈을 가지고, 자기 동리에 처음 들어서는 손에게 가장 순박한 시골의 정취를 돋워 주는 것이다.

(나)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 짝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 제하고 ㉡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 한다.

보니, 핫피는 안 입었으며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기…….” /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 “그런뎡쇼, 왜 이렇게 죄꼬만 집을 사구 와 겠쇼. 아,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다) 하루는 나는 거의 그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선생님 겠쇼?”
하고 수건이가 찾아왔다. 반가웠다.
“선생님, 요즘 신문이 걸르지 않고 잘 읍쇼?”
하고 그는 배달 감독이나 되어 온 듯이 묻는다.
“잘 오, 왜 그류?” / 한즉 또,
“늦지도 않습쇼, 일쪽이 제때마다 꼭꼭 읍쇼?” / 한다.

“당신이 돌볼 때보다 세 시간은 일쪽이 오고 날마다 꼭꼭 잘 오.” / 하니 그는 머리를 벽적벽적 긁으면서,
㉣ “하루라도 걸르기만 해라. 신문사에 가서 대뜸 일러 바치지…….” / 하고 그 빈약한 주먹을 부르낸다.

(라) 웬 사람 하나가 날째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이의 떡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

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65. 위 작품에서 ‘황수건’과 ‘나’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교양 있는 어휘를 구사한다.
- ② ‘나’는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며 말을 한다.
- ③ ‘황수건’은 비표준어를 사용한다.
- ④ ‘황수건’은 하층민의 지역 방언을 사용한다.
- ⑤ ‘황수건’은 굽실거리는 상대 높임법을 사용한다.

66. ㉠~㉤ 중 황수건의 성격을 드러내는 언행이 아닌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67. (가)~(라)에서 ‘황수건’에 대한 서술자의 단정적 평가가 드러나는 말을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떤 날은 서로 말이 막히기도 했다. 대답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고 막혔다. 그러나 그는 늘 나보다 빠르게 이야깃거리를 잘 찾아냈다. 오뉴월인데도 “꿩고기를 잘 먹느냐?”고도 묻고 “양복은 저고리를 먼저 입느냐 바지를 먼저 입느냐?”고도 묻고 “소와 말과 싸움을 붙이면 어느 것이 이기겠느냐?”는 등, 아무튼 그가 애깃거리를 취재하는 방면은 기상천외로 여간 범위가 넓지 않은 데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나는 “평생소원이 무엇이나?”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그까짓 것쯤 얼른 대답하기는 누워서 떡먹기.”라고 하면서 평생소원은 자기도 원 배달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

다는 것이었다.

(나)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쓸라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맡았나 봅시다.” / 한다. /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루 한 구역이 된걸이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다) 그는 “너의 색시 달아난다.” 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의 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돌이나 달아났다니 까 오늘은 이 동리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빠 하학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오십 분 만에 치는 종을 이십 분 만에, 삼십 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라) “이걸 봅쇼.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 / 한다.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러니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제가 생각해 냈습쇼.” / 한다.

“왜 그러소?” / 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뱀쇼. 아 삼산 학교 그 녀석두 우두만 넣었다면 그까짓 것 무서울 것 없는뱀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

한다. 나는, /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쇼.” / 하였다. 그는 좋아서 병긋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마)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다섯 송이의 포도를 탁자 위에 얹어 놓고 오래 바라보며 아껴 먹었다.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한 알을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 보며 먹었다.

68. 위 글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인물간의 외적갈등보다는 심리적 갈등이 지배적이다.
- ② 상황 판단이 서투른 인물의 어수룩함이 웃음을 자아낸다.
- ③ 작품 내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작품을 이끌어 가고 있다.

- ④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천진난만한 순박함이 드러난다.
- ⑤ 인물들은 서로 다른 계층으로 상이한 사회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69. 위 작품에서 서술자가 ‘황수건’에게 대하는 태도나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의 처지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낀다.
- ② 그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도 즐거워한다.
- ③ 그의 따뜻한 품성에 감동하며 도와주고자 한다.
- ④ 그의 소박한 꿈이 실현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한다.
- ⑤ 그의 엉뚱한 이야기에 무조건 동조하고자 한다.

70. 다음 중 ㉠의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황수건이 찾아오면 감사를 표하기 위해
- ② 포도값을 대신 물어주고 얻은 포도이기에
- ③ 황수건의 순박한 인정이 담긴 선물이기에
- ④ 다섯 송이 밖에 되지 않는 적은 양이기에
- ⑤ 황수건을 다시 볼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문 보는 집엔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 한다. 이것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러소?” /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입쇼, 망아지만 한 개가 있는뱀쇼,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얍쇼.”
 “왜?” / “막 깨물라고 덤비는걸입쇼.”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 “그놈의 갠 그저, 한번, 양떡을 맥여 대야 할 텐데…….”
 (나) “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쓸라다가 똑똑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맡았나 봅시다.” / 한다. /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 / 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루 한 구역이 된걸이요.”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이렇게 되었으니 황수건이가 우리 집에 올 길은 없어지고 말았다. 나도 가끔 문안엔 다니지만 그의 집은 내가 다니는 길 옆은 아닌 듯 길가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까운 친구를 먼 곳에 보낸 것처럼, 아니 친구가

큰 사업에나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못 만나는 섭섭
뿐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기도 하였다. 그 당자와 함께 세
상의 야박함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다) 역시 그때부터도 이야기하기를 대단 즐기어 선생
들이 교실에 들어간 새, 손님이 오면 으레 손님을 앉히고
는 자기도 걸상을 갖다 떡 마주 놓고 앉는 것은 물론, 마
주 앉아서는 곧 자기류의 만담 삼매로 빠지는 것인데, 한
번은 도 학무국에서 시학관이 나온 것을 이따위로 대접하
였다. 일본말을 못 하니까 만담은 할 수 없고 마주 앉아
서 자꾸 일본말을 연습하였다. (중략)

시학관도 인정이라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열 번 스무
번을 되풀이하는 데는 성이 나고 말았다. 선생들은 아무
리 기다려도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한 선생이 나와 보
니 종 칠 것도 잊어버리고 손님과 마주 앉아서 “오하요
유키가 후리마스카……” 하는 판이다.

그날 수건이는 선생들에게 단단히 물리고 다시는 안 그
러겠노라고 했으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예 쫓겨
나오고 만 것이다.

(라)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
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마)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
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칸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
키……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를 부르며 큰길이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 “수건인가?” /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
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
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
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
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꺾꺾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 ③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 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金)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 박재삼, <흥부 부부상>
- ④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정지용, <향수>
- 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점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 백석, <여승>

**72. 위 글을 읽은 '황수건'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수룩한 행동과 상식에 벗어난 말이 웃음을 자아낸다.
- ② 인물의 계속되는 불운한 삶을 통해 비극성을 느낄 수 있
다.
- ③ 못난 인간형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순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④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받고 있지는
않나 깨닫게 해준다.
- ⑤ 삶에 대한 집착이 크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보아 성실한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다.

73. (마)에 드러나는 배경의 분위기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환상적 ② 애상적 ③ 관조적
- ④ 낭만적 ⑤ 토속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령소, 신문이오?”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
죠. 제기…….” /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그런데, 왜 이렇게 죄꼬만 집을 사구 와 겠쇼. 아,
내가 알았더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뺨뺨 깎은 머리되되 보통 크
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짱
구 대가리다.
“그령소? 아무튼 집 찾노라고 수고했소.”

**71. 다음 중 서술상의 특징이 위의 작품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②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 김소월, <초혼>

(나) “신문 보는 집엔입쇼, 개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 한다. 이것 재미있는 말이다 하고 나는,

“왜 그렇소?” / 하고 또 물었다.

“아, 이 뒷동네 은행소에 댕기는 집엔입쇼, 망아지만 한 개가 있는텝쇼, 아, 신문을 배달할 수가 있어얍쇼.”

“왜?” / “막 깨물라고 덤비는걸입쇼.”

한다. 말 같지 않아서 나는 웃기만 하니 그는 더욱 신을 낸다.

“그놈의 갠 그저, 한번, 양떡을 뱉어 대야 할 텐데…….” / 하면서 주먹을 부르는데 보니, 손과 팔목은 머리에 비기어 반비레로 작고 가느다랗다.

“어서 곤할 텐데 가 자시오.”

(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 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 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라)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쇼.”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썰게 그의 뒤를 따라들어오더니 다짜고짜로 수건의 떡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마)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를 부르며 큰길기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 나는, /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꺾꺾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74. 위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다.
- ② ㉠과 ㉡에는 순박한 인정이 담겨 있다.
- ③ ㉡은 선물로 주기 위해 흠쳐온 물건이다.
- ④ ㉢은 ‘나’에 대한 은근한 순정의 열매이다.
- ⑤ ㉠과 ㉡은 황수건의 어수룩함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75. (마)에서 밑줄 친 ㉢의 기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비극적인 현실 부각
- ② 인물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강조
- ③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 형성
- ④ 인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분위기 조성
- ⑤ 인물의 삶과 어우러져 애상적인 분위기 조성

76. 위 작품에서 드러나는 ‘나’와 ‘황수건’의 소통 방식의 차이점과 그 특징을 서술하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꺾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을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핫피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기…….”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그런텝쇼, 왜 이렇게 죄꼬만 집을 사구 와 겹쇼. 아,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뺨뺨 깎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나) 그는 “너의 색시 달아난다.”하는 말을 제일 무서워했다 한다. 한번은 어느 선생이 장난의 말로,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엔 옛날부터 색시들이 달아나기를 좋아하는데 어제도 저 아랫말에서 둘이나 달아났다니 까 오늘은 이 동리에서 꼭 달아나는 색시가 있을걸…….”

했더니 수건이는 점심을 먹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어서 바빠 하학을 시키고 집으로 갈 양으로 오십 분 만에 치는 종을 이십 분 만에, 삼십 분 만에 함부로 다가서 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끌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어섯 송이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으로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째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이의 먹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틈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77.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작품 내부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② (가)에서 황수건은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충실한 인물임이 드러난다.
- ③ (가)의 대화를 통해 ‘나’는 신분과 상관없이 상대를 존중해주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 (다)의 일부 사건에 대한 암시가 드러난다.
- ⑤ (다)에는 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대한 작가의 직접적인 논평이 드러난다.

78.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황수건의 신분을 드러내는 말투의 특징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1. 3가지로 나눠서 서술할 것.
 2. ‘제기, 죄꼬만, 개와집, 맥입쇼, 겹쇼’ 등의 낱말을 예로 들어 서술할 것.

79. (나)를 통해 인물에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한 잔 먹세그려. 또 한잔 먹세그려, 꽃 꺾어 놓고 무진 무진 먹세그려
 이 몸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 메고 가나 오색실 화려한 휘장에 만인이 울며 가나, 역새 풀, 속새풀, 떡갈나무, 백양 속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회오리 바람 불제 누 한 잔 먹자 할꼬
 하물며 무덤위에 원숭이 휘파람 불 때야 누우친들 어찌하리
- ② 개를 여러문이나 기르되 요 개갓치 알피오라.
 뒤편 님 오며는 꼬리를 뻗치며 뛰락 나리 뛰락 반겨서 내닷고, 고은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므르락 나으락 캉캉 즈져서 도라가게 한다.
 선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라.
- ③ 당시(當時)에 녀던 길흘 몇해를 바려 두고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야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디 마음 마로리
- ④ 굵병이 매암이 되야 나래 돌쳐 나라 올라
 노프나 노픈 남게 소리는 조커니와
 그 우희 거미술 이시니 그를 조심하여라.
- ⑤ 컷도리 저 컷도리 여엿부다 저 컷도리
 어인 컷도리 지난 달 새난 밤의 긴 소리 자른 소리 절절이 슌픈 소리 제 혼자 우리 네어 사창(紗窓) 여원 잠을 살드리도 깨오난고야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뜻 알리난 저뿐인가 하노라.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러나 이튿날 그는 오지 않았다. 밤이 늦도록 신문도 그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신문도 그도 오지 않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야, 이날은 해도 지기 전인데 방울 소리가 요란스럽게 우리 집으로 뛰어들었다.

“어디 보자!”

하고 나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그러나 웬일일까, 정말 배달복에 방울을 차고 신문을 들고 들어서는 사람은 황수건이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왜 전옛 사람은 어디 가고 당신이요?”/물으니 그는,

“제가 성복동을 맡았습니다.”/한다.

“그럼, 전옛 사람은 어디를 맡았고?”

하니 그는 픽 웃으며,

①“그까짓 반편을 어딜 맡깁니까? 배달부로 쓸라다가 푹푹지가 못하니까 안 쓰고 맡았나 봅니다.”/한다.

“그럼 보조 배달도 떨어졌소?”/하니,
 “그럼요, 여기가 따루 한 구역이 된걸이오.”
 하면서 방울을 울리며 나갔다.

(나) “그래 삼산 학교에 다시 들기만 기다리고 있소?”
 물으니 그는,

“돈만 있으면 그까짓 거 누가 고즈카이 노릇을 합쇼. 밀천만 있으면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장사를 할 턱 됩쇼?”/한다.

“무슨 장사?”

“아, 방학 될 때까지 차미 장사도 하굽쇼, 가을부터는 군 밤 장사, 왜떡 장사, 습자지, 도화지 장사 막 합쇼. ㉠삼산 학교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좋아하겠쇼. 저를 선생들 보다 낮게 치는덱쇼.”/한다.

나는 그날 그에게 돈 삼 원을 주었다. 그의 말대로 삼산 학교 앞에 가서 뼈젓이 참외 장사라도 해 보라고. 그리고 돈은 남지 못하면 돌려 오지 않아도 좋다 하였다.

그는 삼 원 돈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나갔다. 그리고 그 이튿날,

“선생님 잡수시라굽쇼.”

하고 나 없는 때 참외 세 개를 갖다 두고 갔다.

(다) “사……케……와 나……미다카 다메이……키……카……(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를 부르며 큰길의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칫 줄 하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펍펍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

80. ㉠에 대해 '나'가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편일 수 있지만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 ②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는 생각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③ 그를 제대로 아시나요? 충분히 원 배달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④ 똑똑하지 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일을 그만 두게 하는 것은 야박하네요.
- ⑤ 모르시겠지만 그는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조 배달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81. ㉡을 통해 드러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심리와 행동의 불일치로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을 품게 한다.
- ② 인물의 대인관계를 통해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믿음을 준다.
- ③ 인물의 장점을 드러내 우호적인 생각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한다.
- ④ 인물의 생각과 외부의 평가의 차이를 드러내 인물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필연적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사건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82. 위 글에서 ㉢이 조성하는 분위기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이 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것다.//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지껄이것다. //
 이 비 그치면
 시새워 병글어질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香煙)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랭이 타오르것다.

- 이수복, 봄비

- ② 너를 부르마
 불러서 그리우면 사랑이라 하마
 아무 데도 보이지 않아도
 내 가장 가까운 곳
 나와 함께 숨 쉬는
 공기여
 시궁창에도 버림받은 하늘에도
 쓰러진 너를 일으켜서
 나는 숨을 쉬고 싶다.
 내 여기 살아야 하므로
 이 땅이 나를 버려도
 공기여, 새삼스레 나는 네 이름을 부른다.

- 정희성, 너를 부르마

③ 돌담 기대 친구 손 붙들고
 토한 뒤 눈물 닦고 코풀고 나서
 우러른 잿빛 하늘
 무화과 한 그루가 그마저 가려섰다. //
 이봐
 내겐 꽃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쩐가
 친구는 손 뽑아 등 다스려주며
 이것봐
 열매 속에서 속꽃 피는 게
 그게 무화가 아닌가
 어쩐가

- 김지하, 무화과

④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털며
 산호(珊瑚)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 김기림, 연륜

⑤ 비바람 험살궂게 거쳐 간 추녀밀 --
 날개 찢어진 늙은 노랑나비가
 맨드라미 대가리를 물고 가슴을 앓는다.//
 찢긴 나래의 맥이 풀려
 그리운 꽃밭을 찾아갈 수 없는 슬픔에
 물고 있는 맨드라미조차 소태 맞이다.//
 자랑스러울손 화려한 춤재주도
 한 옛날의 꿈 조각처럼 흐리어
 늙은 무녀(舞女)처럼 나비는 한숨진다.

- 윤곤강, 나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자기는 워낙 이 아래 있는 삼산 학교에서 일을 보
 다 어떤 선생하고 뜻이 덜 맞아 나왔다는 것, 지금은 신
 문 배달을 하나 원 배달이 아니라 보조 배달이라는 것,
 저희 집엔 양친과 형님 내외와 조카 하나와 저희 내외까
 지 식구가 일곱이라는 것,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님의 이

름은 무엇 무엇이며, 자기 이름은 황가인데다가 목숨 수
 자하고 세울 건자로 황수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랑
 수건이라고 놀리어서 성북동에서는 가가호호에서 노랑 수
 건 하면, 다 자긴 줄 알리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이날도,

“어서 그만 다른 집에도 신문을 갖다 줘야 하지 않
 소?”하니깐 그때서야 마지못해 나갔다.

우리 집에서는 그까짓 반편과 무얼 대꾸를 해 가지고
 그러느냐 하되, 나는 그와 지껄이기가 좋았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열심스럽게 이야기하
 는 것이 좋았고, 그와는 아무리 오래 지껄이어도 힘이 들
 지 않고, 또 아무리 오래 지껄이고 나도 웃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뜨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중만 아니면 한참씩 그의 말을 받아 주었
 다.

(나) 그러고는 온 여름 동안 그는 우리 집에 얼른하지
 않았다.

들으니 참외 장사를 해 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밀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짓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
 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단 것이다. 저희끼리 금슬은 괜찮
 았건만 동서가 못 견디게 굴어 달아난 것이라 한다. 남편
 만 남 같으면 따로 살림 나는 날이나 기다리고 살 것이나
 평생 동서 밑에 살아야 할 신세를 생각하고 달아난 것이
 라 한다.

그런데 요 며칠 전이었다. 밤인데 달포 만에 수건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웬 ㉠포도를 큰 것으로 대여섯 송이
 를 종이에 싸지도 않고 ㉡맨손으로 들고 들어왔다. 그는
 병긋거리며 첫마디로,

“선생님 잡수라고 사 왔습죠.”

하는 때였다. 웬 사람 하나가 날째게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수건이의 멍살을 움켜쥐고 끌고 나
 갔다. 수건이는 그 우둔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꼼짝
 못하고 끌려 나갔다.

나는 수건이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훔쳐 온 것을 직각하
 였다. 쫓아 나가 매를 말리고 포도값을 물어 주었다. 포
 도값을 물어 주고 보니 수건이는 어느 콤에 사라지고 보
 이지 않았다.

83. 위 글에 나타난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인 서술자의 모습을 유지하
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심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인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는 작품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인물의 내면 의식
의 변화를 살피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품 안과 밖을 넘나들며 인물에 대한 정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작품 안의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인물에 대해 관찰

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84. ㉠의 역할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임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西域) 삼만리
흰 옷깃 여머여며 가옵신 임의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巴蜀) 삼만리//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의
올올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
초롱에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햇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입아.

- 서정주, 귀촉도

② 거문고 타자하니 손이 아파 어렵거늘

북창송음(北窓松陰)에 줄을 얹어 걸어두고
바람의 제우는 소리 이것이야 듣기 좋다
- 작자미상

③ 승기자를 염지하니 반복소인 허기진다

내 몸에 이할 대로 남의 말을 탄치 않고
친구 벗은 좋아하며 제 일가는 불목하며
병날 노릇 모두 하고 **인삼녹용** 몸 보키와
주색잡기 모두하여 돈 주정을 무진하네
부모조상 돈망하며 내 인사는 나중이요 남의 흥만 잡아
낸다

내 행세는 개차반에 경계판을 짚어지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선봉이라

- 작자미상, 우부가

④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가난한 아희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어린 양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 김종삼, 북 치는 소년

⑤ 굶주리는 마을 위에 놀이 뗏다.

화안히 곱기만 한 저녁놀이 뗏다.//

가신 듯이 집집이 연기도 안 오르고
어린것들 늙은이는 먼저 풀어져 그대로 밤자리에 들
고.//
끼니를 놓으니 할 일이 없어
선네도 나와 참 고운 놀을 본다.//
원도 사또도 대감도 옛같이 없잖아 있어
거들어져 있어//
하늘의 선물처럼
소리 없는 백성 위에 저녁놀이 뗏다.

- 유치환, 저녁놀이

85. ㉠과 단어형성 방법이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험쌀 ② 첫날밤 ③ 시누이
- ④ 공부하다 ⑤ 뒤바꾸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런데 그날 밤 황수건이는 열 시나 되어서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어두운 마당에서 ㉠ 뻥 지르는 소리로,
“아, 이 댁이 문안서…….”
하면서 들어섰다. 잡담을 제하고 큰일이나 난 사람처럼 건넌방 문 앞으로 달려들더니,
“저, 저 문안 서대문 거리라나요, 어디선가 나오신 댁입쇼?”
한다.
보니, ㉡ 햇피는 안 입었으되 신문을 들고 온 것이 신문 배달부다.
“그렇소, 신문이요?”
“아, 그런 걸 사흘이나 저, 저 건너 쪽에만 가 찾았습쇼. 제기…….”
하더니 신문을 방에 들이뜨리며,
“그런뎡쇼, ㉢ 왜 이렇게 죄꼬만 집을 사구 와 겹쇼. 아, 내가 알았더라면 이 아래 큰 개와집도 많은걸입쇼…….”
한다. 하 말이 황당스러 유심히 그의 생김을 내다보니 눈에 얼른 두드러지는 것이 짹짹 낡은 머리로되 보통 크다는 정도 이상으로 골이 크다. 그런데다 옆으로 보니 짱구 대가리다.
(나) “그런뎡쇼, 제가 온 건입쇼, 댁에선 우두를 넣지 마시라구 왔습쇼.”/한다.

“우두를 왜 넣지 말란 말이요?”/한죽,
 “요즘 마마가 다닌다구 모두 우두들을 넣는텝쇼, 우두를 넣으면 사람이 근력이 없어지는 법인텝쇼.”
 하고 자기 팔을 걸어 올려 우두 자리를 보이면서,
 “이걸 봅쇼. 저두 우두를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근력이 줄었습쇼.”/한다.
 ㉠ “우두를 넣으면 근력이 준다고 누가 그러디까?”
 물으니 그는 싱글거리며,
 “아, 제가 생각해 냈습쇼.”/한다.
 “왜 그렇소?”/하고 캐니,
 “뭘…… 저 아래 윤금보라고 있는데 기운이 장산텝쇼, 그걸 모르겠거든입쇼…….”/한다. 나는,
 ㉡ “그렇게 용한 생각을 하고 일러 주러 왔으니 아주 고맙소.”
 하였다. 그는 좋아서 병긱거리며 머리를 긁었다.

86. 위 글을 읽고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보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여러 집단과 계층으로 구성되며 이들 집단과 계층은 나름의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를 (㉠)라고/이라고 하는데, 계층, 성별, 학력, 직업 등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언어의 변이 형태를 말한다.

(가)에서 황수건은 합쇼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높이며 굽실거리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고, ‘나’는 (㉡)를 사용하여 상대에게 예를 갖추고 대우를 해 주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87. (나)와 <보기>에서 보이는 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봤지? 자치회는 이걸루 끝났다.”
 “그래, 이영래가 오늘부터 우리 반 급장이다.”
 “반대하는 놈들은 우리 반이 아니야.”
 영래는 만족에 가득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들 밖으로 집합. 야 종하야, 집합시켜서 오목내 다리 밑으로 내려가.”
 나는 환성을 울리며 밀려 나가는 애들의 뒤를 따라 나갔고, 우리 뒤에서 종하가
 “빨리빨리 움직여.” 어찌구 하며 고태치는 소리가 들렸다. 석환이와 몇몇 아이들이 꾸물거리는 걸 보고 영래가 뒷짐을 지고 서서 종하에게 말했다.
 “야, 단체 행동에서 빠지는 애는 잡아다 조겨.”

- ① (나)와 <보기> 모두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격식체의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나)와 <보기> 모두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회 계층에 대한 추리가 가능하게 한다.
- ③ (나)는 문답형식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지고, <보기>는 구성원 모두가 동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 ④ (나)는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대등한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보기>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⑤ (나)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통해 소통의 단절을 드러내고, <보기>는 명령 어법을 통해 소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8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앞뒤 따지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충실한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② ㉡ - 황수건이 정식 신문 배달부가 아님을 암시한다.
- ③ ㉢ - 초면에 실례가 될 수 있는 언행으로 인물의 천진함이 드러난다.
- ④ ㉣ -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 ⑤ ㉤ - 상대방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고 인물의 어수룩함이 드러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동생에게 어렸을 적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써 보낸다. 어렸을 적 ‘나’는 총알을 찾으러 노깡 속에 들어갔다가 빠다귀를 보고 기절한 후 종종 노깡 속에 들어가 있는 악몽을 꾸게 된다. 서울이 수복된 후 ‘나’는 부산에서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된다. 전학 온 학교에서 영래는 아이들의 환심을 사서 반장이 되고, 자신의 부하인 은수, 종하와 함께 아이들을 괴롭힌다. 그러던 중 민주적인 교생 선생님이 부임해 와서 영래의 행동을 타이르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친다.

[가] 한번은 기지촌 아이들 중의 하나가 양조장 집 아들의 도시락을 빼앗아 먹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우연히 알아채게 되었다. “어린이는 왜 점심을 안 싸오지, 배고프지 않아요?” 울먹울먹하며 그애는 연방 빼앗아 간 쪽을 바라보았고, 그놈은 입가에 손가락을 대며 주먹을 쥐어 흔들어 보였다. “**㉠자 이리 와 나하구 같이 먹어요.**” 빼앗긴 아이가 수줍어하며 가까스로 말했다. “선생님……. 싫어요. 진짜는 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왜 안 먹을까, 몸이 아픈가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웃음을 방긱 머금고 말했다. “아, 착한 어린이군요. 누구를 위해 주었군요, 그렇죠?” 그애가 더욱 울상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재빨리 말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렇게 서로 돕는 정다운 행동에 마음이 한없이 기쁩요.” ㉠**남의 도시락을 앞에 놓고 있던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아마 나보다도 여러분이 학급 친구의 사정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지요. 도시락을 못 가져오는 어린이가 몇 사람 더 있을 줄로 압니다. ㉡**내일부터 누구든지 그런 친구의 도시락을 함께 싸올 어린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리를 하지 말고, ㉢**어머님께 여쭙봐서 허락을 얻으면 말이에요.**” 나는 영래랑 어울려서 으쓱대던 그애들이 미웠지만, 내 아름다운 선생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거역할 수가 없었으므로 어머니에게 여쭙어보았다.

[1]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올 것을 권유하는 교생 선생님
 [생략된 부분 줄거리] 어머니에게 ‘나’는 도시락을 두 개씩 싸 달라 부탁을 하고, 그 애의 자리마다 도시락을 갖다 둔다. 석환이도 동일이도 점심을 들 썩 준비해 오면서 기지촌 세 아이들은 한결 양순해진다.

[나] “뭘 하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입을 꼭 다물었고 영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벌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벌을?” “애들이 단체행동에서 빠지려구 합니다.” “단체행동이라니……” “애들 때문에 우리가 졌어요. 우리 반의 명예를 위해서 전부 놀이에 참가할 작정이었습니다.” “네, 그런가요. ㉣**언제 그 놀이를 해보자구 여럿이서 의논을 했었나요?**” 선생님의 한결같이 부드러운 질문에 영래가 대들 듯이 거칠게 대답했다. “아뇨, 하나마나죠. ㉤**우리 반을 위해서 나는 모두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럿이 하는 일에 마음이 모두 맞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만 주장해서는 절대로 무슨 일에서건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급장은 책임이 중할수록 누구에게 불만이 없는가를 살피고,** 있다면 그 불만이 자기가 저지른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닌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모으겠다는 핑계로 제 잘못을 감추려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2] 영래의 잘못된 학급 운영을 지적하는 교생 선생님

89.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편지 형식을 통해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 ③ 서로 다른 각각의 이야기가 동일한 주제로 묶여 전개된다.

- ④ 주인공의 삶에 대한 태도와 의식이 변화하는 성장 소설이다.
- ⑤ 한 학급의 이야기를 통해 부정적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90. 이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생 선생님은 올바른 학급 운영에 대해 조언하셨어.
- ② 베풀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학급 아이들이 변화하고 있군.
- ③ ‘나’의 어머니는 결국 도시락을 두 개 싸달라는 ‘나’의 부탁을 들어주셨어.
- ④ 영래가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이유는 다른 반과의 시합에서 빠졌기 때문이군.
- ⑤ ‘나’는 교생 선생님의 말씀에 도시락을 갖다 두면서 도시락을 빨리 달라며 재촉했군.

91. 교생 선생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다.
- ② 학생들에게 계급적 질서를 부여하여 학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③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학생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 ④ 학급 운영을 모두 학생들에게 맡겨 학생들의 자율성을 키워 주고 있다.
- ⑤ 학생들에게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있다.

92. ㉠에서 엿볼 수 있는 기지촌 아이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교생 선생님 때문에 흠친 것이 밝혀져 속상해하고 있다.
- ② 도시락을 싸 오지 못하는 집안 형편을 생각하며 한탄하고 있다.
- ③ 자신이 도시락을 흠친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④ 흠친 도시락을 영래네에게 전달해 주지 못해 영래에게 미안해하고 있다.

- ⑤ 도시락을 빼앗은 자신의 행동을 덮어주시는 교생 선생님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93.[서술형] 밑줄 친 ㉠에서 알 수 있는 영래의 사고방식을 쓰시오.

94.이 글에서 교생 선생님이 지적하고 있는 영래의 잘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급의 중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유부단한 태도로 일관한 점
- ② 학생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점
- ③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점
- ④ 학급 전체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행동을 더 중요히 여기는 점
- ⑤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벌을 줄 때, 이에 대한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은 점

95.㉠~㉣ 중, <보기>의 화자가 추구하고 있는 대상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은?

보기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 <중략> 네 이름을 남 몰래 쓴다 / 민주주의여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96.다음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교생 선생님은 양조장 집 아들의 도시락을 빼앗아 먹은 학생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
- (2) ‘나’ 말고도 도시락을 두 개 준비해 오는 친구들이

있었다. ()

- (3) 교생 선생님은 영래의 학급 운영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

97.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은)는 폭력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계급을 상징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생략된 부분 줄거리] 자치회 때의 일로 교생 선생님에게 앙심을 품은 영래 일당은 교생 선생님을 향해 음탕한 그림을 그린 종이 조각을 수업 시간에 돌리라고 지시하지만, 종이를 받은 ‘나’는 그 종이를 다른 아이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가]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뒤에서 종하가 대견한 짓이라도 해냈다는 듯이 “애들아 그 쪽지 어디까지 갔는지 이쪽으로 다시 돌려라” 하며 떠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겁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했다.

[1] 나는 종이 조각을 돌리지 않으며 저항함

[나] “내가 가졌다 왜. 정말 너 이 따위 장난만 하냐?” 종하와 은수가 얼굴을 마주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짙짙 웃어댔다. “그게 니 깔치니?” “구경했으면 고맙다 구 그럴 게지, 이 새끼가……” 나도 지지 않고 말했다. “너희들 사과 안하면 그냥 안 둔다.” 그에게로 가서 종이 조각을 내밀어 주었다. “사과해, 너는 선생님을 욕보인 나쁜 놈이다.” “그래 병아리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하고 석환이가 잇달아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 이걸 네 손으로 찢어버려.” “이 새끼가…… 맞아볼래?” 종하가 내 먹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다가 바닥에 쓰러뜨렸다. 은수와 영래가 “뺏아버려, 뺏아.”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아이들이 뒤로 한꺼번에 물러들어 제각기 떠들었다.

[2] ‘나’의 행동에 대해 아이들이 동조하며 함께 저항함

[다] “너는 반장 자격이 없어.” “그만뒤라.” 나는 종하에게 종이쪽지를 내밀었다. 종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듯이 영래를 바라보자 그애는 의외로 나약해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찢어, 입마.” 종하가 그걸 찢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내게 사과 안 할테냐?”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래 사과하란 말야, 짜식들아.” “사과 안 하면 몰매를 놓아서 쫓아내라.” 종하가 아주 비굴하게 들릴까말까한 음성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는 모두가 그애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풀이 죽은 걸 보고서 어리둥절해질 지경이었다.

㉠ 나의 들끓던 수치감은 그때에 꼭 몰려 있던 오줌이 방광을 비집고 쏟아져 나올 때처럼 외부로 터져나갔고, 가벼운 몸서리를 흠뻑 느꼈던 것이었다.

[3] '나'를 비롯한 아이들의 저항과 영래네의 급속한 몰락

[라] 나는 노깡 속의 어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선생님과 헤어지기 며칠 전에 어머니에게 졸라서 그분을 집으로 초대할 적이 있었지. 그 날 나는 부끄러워하면서 내 악몽의 비밀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말했어. “애써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무서워만 하면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겁쟁이가 되어 끝내 무서움에서 놓여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뒤 몇 번이나 벼른 끝에 모험을 감행하게 되었고, 노깡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더랬지. 나는 그 속의 뼈다귀가 개뼈, 소뼈, 사람 뼈다귀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아무렇지 않게 길을 들었던 것이다.

-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4] 교생 선생님을 통한 깨달음(노깡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나')

[뒷부분 줄거리] '나'는 아우에게 윤리적 무관심으로 정의가 짓밟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며 편지를 맺는다.

98. 이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작품 속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삶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 ③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면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심리를 배제한 채,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99. 이 글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의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② 서로를 이해하는 배려만이 이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 ④ 부당한 권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대 의식에 기반한 저항 의지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 ⑤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100. 글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찾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문학 작품에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보편적 주제가 담겨 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문학을 통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 ①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 ②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보편적 사랑
- ③ 연대 의식에 기반한 적극적인 저항 의지와 행동
- ④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참아내는 인내
- ⑤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

101. 글을 읽고 상상할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종하가 '나'의 떡살을 잡고 밀치는 장면
- ② 종하에게 '나'가 당당하게 항의하는 장면
- ③ 교생 선생님과 '나'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 ④ 종하가 '나'를 비롯한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장면
- ⑤ 사과를 요구하는 아이들에게 영래가 화를 내는 장면

102. 종이 조각(쪽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을 반전시키는 매개체이다.
- ② 영래 일당에게 아이들이 동조하게 된다.
- ③ 영래 일당이 교생 선생님을 놀리는 수단이다.
- ④ '나'가 영래 일당에게 저항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⑤ 아이들이 '나'에게 동조하게 되는 사건의 계기가 된다.

103. 서술형] '나'의 심리와 연관지어 ㉠의 의미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104. 글에는 '나'가 두 가지 공포를 극복하는 과정이 그

려져 있다. ㉠와 ㉡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공포의 대상	극복하는 과정
영래 일당의 억압과 폭력	㉠
노깡	㉡

	㉠	㉡
①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영래네를 용서함.	노깡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함.
②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영래네를 용서함.	노깡 속으로 다시 들어감.
③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영래네에게 저항함.	노깡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함.
④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영래네에게 저항함.	노깡 속으로 다시 들어감.
⑤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영래네를 교화함.	노깡 속으로 다시 들어감.

105 다음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를 하시오.

- (1) 영래를 비롯한 학급 대다수의 아이들은 교생 선생님을 미워했다. ()
- (2) ‘나’는 종이 조각을 돌린 종하에게 항의하며 맞섰다. ()
- (3) ‘나’를 비롯한 아이들은 영래 일당이 쉽게 몰락하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
- (4) ‘나’에게 있어 노깡 속의 기억은 이미 잊혀 있었다. ()

106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글의 전반부에서 □□(은)는 ‘나’를 겁쟁이로 만드는 부정적 공간이었지만, 후반부에서는 ‘나’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시키는 성숙의 공간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안녕하세요, 이주현입니다. 여러분은 미술 작품을 볼 때, 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아마 색이나 구도, 주제, 상징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1] 미술 작품 감상에서의 중점 대상

[나] 저는 오늘 빛이라는 관점에서 두 작품을 감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이지요. 보는 것과 빛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서양의 화가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물을 그리려 했기 때문에 빛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네와 고희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화가들일 것입니다. 저는 두 화가의 그림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림에서 아주 화사한 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화가 모두 빛의 마술사라 불릴 만큼 탁월하게 빛을 표현하였지만, 표현 방법에서는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2] 빛의 마술사로 불리는 모네와 고희 소개



[다] 먼저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이 그림은 모네가 그린 '양산을 쓴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양산을 쓰고 언덕 위에서 서 있습니다. 아마도 산책을 하나 봅니다. 여인은 금방이라도 대기 속으로 흩어질 것만 같습니다.

옷자락을 날리는 바람 때문일까요, 따사로운 내리쬐는 빛 때문일까요? 사람과 자연의 경계가 흐려져 옷과 풀, 얼굴, 하늘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자꾸 들여다보니 그림의 주인공은 양산을 쓴 여인이 아니라 사물을 뒤섞어 놓은 빛과 바람 같습니다.

[3]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에 대한 감상

[라] 이 그림은 모네가 아내 카미유를 소재로 한 그림

중 가장 매혹적¹⁾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이 있는 아래쪽을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돌린 순간 그곳은 바람이 베일을 날려 그녀의 얼굴을 휘감습니다. 빛은 어떤가요? 뒤쪽에서 들어와 인물을 둘러싸고 있어서, 하늘과 같은 색으로 표현된 의상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밝은 햇살 아래 서 있기에 하얀 옷의 그늘 속에는 보랏빛이 감도는 듯합니다. 모네는 이렇듯 소재의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찰나²⁾의 분위기를 통해 감탄스러운 자연의 한순간을 포착³⁾하고 있습니다.

[4] 모네의 그림에서 '빛'

[마] 모네에게 아름다움이란 부단히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네는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좀 더 환하고 밝은 자연광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에게 빛은 즐거움과 찰나의 분위기를 표현하게 해 주는 훌륭한 도구였습니다. 빛으로 완성된 그림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단면들을 보여 줄 수 있었던 것이지요.

[5] 모네의 그림에서 '빛'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것

[바] 물론 모든 화가들이 모네와 같은 방식을 택한 것은 아니겠지요? 모네 이후의 화가들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빛이 아니라, 회화 속에 내재된⁴⁾ 빛을 표현했습니다. 그림에 사용된 색을 통해 빛의 표현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보통 '색깔'이라는 말과 '빛깔'이라는 말을 같이 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색의 표현이 곧 빛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6] 모네 이후 화가들의 빛의 표현



[사] 그림 고희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여기 그의 그림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빛깔이 아주 아름답지요?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빛의 사실적인 묘사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단 빛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화병이 있지만 화병의 그림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꽃의 그림

자도 찾을 수 없죠. 한마디로 사실적인 빛이 이 그림 속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옛 동양화에서 빛을 묘사하지 않는 것처럼 이 그림에도 구체적인 빛의 묘사가 없습니다.

[7] 고흐 그림의 '빛'의 표현

[아]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이 그림에서 아주 환한 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림 자체가 발산하는 빛입니다. 그림에 전체적으로 쓰인 노란색이 빛을 발산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노란빛을 통해 고흐는 말하지요. 바라봐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나도 남들처럼 행복해지고 싶다고! 고흐가 가졌을 행복에 대한 열망이 그림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지요. 화면 전체에서 노란빛을 발산하여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이 가능한 빨리 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흐 또한 빛을 사랑했지만, 그 빛은 모네가 붙들고자 했던 자연광이 아니었습니다. 고흐가 사랑한 빛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자기 마음속의 빛, 화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빛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8] 고흐의 '빛' 표현의 특징

[자] 모네와 고흐의 작품에서 확인한 빛의 표현이 어떠한가요? ㉠이들의 그림 속 빛에 빠져 그들의 시선, 그들의 목소리를 느껴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주현, <빛의 마술사-모네와 고흐>

[9] 독자의 정서적 참여 촉구

[어휘 풀이] 1) 매혹적 - 남의 마음을 사로잡아 흐리는 힘이 있는. 또는 그런 것. 2) 찰나 - 매우 짧은 시간. 3) 포착 - 꼭 붙잡음. 4) 내재된 -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는.

107. 글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빛은 작가가 작품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 ② 사물의 기능이나 존재에는 관념성이 드러나 있다.
- ③ 자유로운 표현은 작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 ④ 사물의 특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성에 있다.
- ⑤ 사람들은 눈에 편한 색보다는 강렬한 대비가 드러나는 색에 더 관심을 갖는다.

108.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자 한다.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빛을 바탕으로 한 철학
 - 자연과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빛이 지니는 의미
- ② 현대 예술 철학의 관심사
 - 모네와 고흐를 통해 느껴 보는 빛의 마술
- ③ 빛의 표현에 심혈을 기울인 모네와 고흐
 - 빛을 통해 바라본 모네와 고흐의 작품의 특징
- ④ '양산을 쓴 여인'과 '해바라기'
 - 모네와 고흐의 예술관을 중심으로
- ⑤ 미술 작품 속에서 빛이 가지는 의미
 - 빛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뒤집은 모네와 고흐

109. 글에서 주되게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빛에 대한 표현이 미술사에 미친 영향
- ② 빛의 표현 면에서 바라본 모네와 고흐 작품의 특징
- ③ 모네와 고흐의 그림을 통해 본 미술 작품 감상 방법
- ④ 모네와 고흐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서양화의 특징
- ⑤ 모네와 고흐의 작품 속에 반영된 그들의 생애와 가치관

110. 다음은 모네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회화에서 빛은 오랜 시간 탐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①빛으로 가득한 대기 자체는 인상주의 화가들에게는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된다. 그들은 ②짧은 순간에 화가가 시각적으로 자각한 사물들, 그 인상을 그리고자 하였다.

모네에게는 ③그림의 주제, 내용보다는 단지 충분한 빛, 그 빛으로 가득한 대기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였다. 빛을 추적한 이 화가는 ④빛의 변화에 따른 색채의 변화 속에서도 종래의 그림처럼 원근법, 명암법, 균형 잡힌 구도, 이상화된 인물 등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모네의 그림에서는 ⑤사물의 형태가 무시되는 경향도 나타나는데, 빛에 의해 눈부시게 빛나는 색채를 표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111 [다]~[마]의 그림을 다른 작품과 비교하며 감상하기 위해 '빛'의 표현 방법이 유사한 작품을 추가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112 [다]~[마]를 읽고 '양산을 쓴 여인'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가가 포착한 찰나의 분위기를 빛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
- ② 빛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옷의 색깔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어.
- ③ 양산을 쓰고 언덕 위에서 있는 여인의 즐거움이 느

껴지는 것 같아.

- ④ 밝은 빛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따스하고 밝은 느낌이 들게 하고 있어.
- ⑤ 소재의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 빛이 주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113 [자]를 바탕으로 고희의 '해바라기'를 감상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 ① 영준 : 중심 소재가 배경과 어떻게 조화되는지에 주목해야겠어.
- ② 덕현 : 멀고 가깝게 느껴지는 원근감을 구체적으로 살피려야겠어.
- ③ 준호 :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빛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해야겠어.
- ④ 한겸 : 그림의 소재를 중심으로 그림 속에 반영된 의식을 살피려야겠어.
- ⑤ 영철 : 그림에 전체적으로 쓰인 색깔이 빛을 발산하는 모습에 주목해야겠어.

114 다음 중 고희의 '해바라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색의 표현을 통해 빛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빛의 모사를 통해 사실감을 주고 있다.
- ③ 빛과 그림자를 이용하여 해바라기의 입체감을 살리고 있다.
- ④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여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 ⑤ 고희의 행복에 대한 열망을 자연광의 표현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115 다음 중 고희가 노란색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의미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갈망
- ② 행복
- ③ 열정
- ④ 사랑
- ⑤ 순수

116 다음 중 '양산을 쓴 여인'과 '해바라기'에 대한 설명으

로 알맞은 것은?

	양산을 쓴 여인	해바라기
①	찰나의 분위기 강조	마음속의 빛 강조
②	그림 자체가 발산하는 빛 강조	자연광 강조
③	마음속의 빛 표현	그림 자체가 발산하는 빛 표현
④	물리적 실체로서의 빛 강조	찰나의 분위기 강조
⑤	색으로 빛 표현	사실적인 빛으로 표현

117 이 글에 제시된 그림 '양산을 쓴 여인'과 '해바라기'에 대한 감상자의 발표 내용을 항목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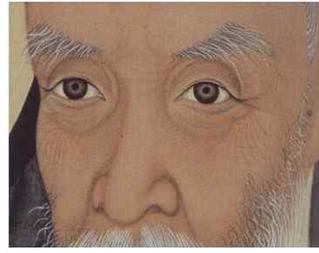
	양산을 쓴 여인	해바라기
작품의 내용	㉠ 양산을 쓰고 나와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여인	화병에 꽂혀 있는 해바라기
작품의 분위기	㉡ 애잔하고, 쓸쓸한 분위기	㉢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
공감하거나 비판하는 부분	살랑거리며 부는 바람에 휘날리는 베일과 옷자락이 손에 잡힐 듯하다.	㉣ 그림 속의 빛은 행복을 갈망하는 고희 마음속의 빛이다.
발표 순서	㉤ 그림 제시 → 그림에 나타난 빛 설명 → 고희와 모네의 빛의 의미 비교 → 그림의 내용 설명	나타난 빛 설명 → 고희와 모네의 빛 설명 → 고희와 모네의 빛의 의미 비교 → 그림의 내용 설명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18 <자료1>은 '이재 초상화'에 대한 글이다. 이 글의 '모네', '고흐'의 그림과 <자료1>의 그림을 비교한 것이 <자료2>라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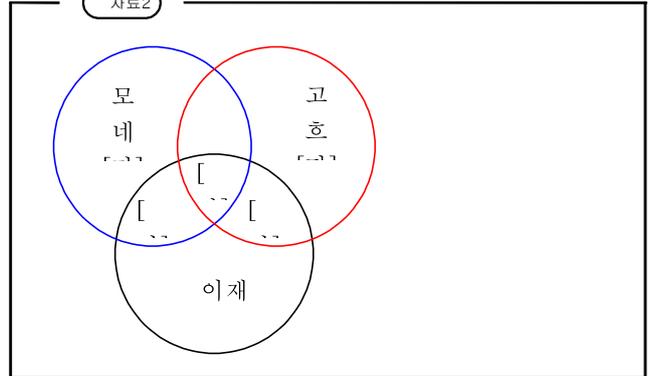
자료1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눈썹이며 눈시울이며 동공의 흥채까지, 서양화에서도 보기 어려운 극사실 묘사입니다. 서양화에서는 빛이 한편에서 들어오면 반대편을 그늘지게 해 입체감을 표현하지만, 우리 그림에서는 사물이 튀어나오거나 오목하게 파인 부분에 음영을 넣습니다. 외부 광선에 영향받지 않는 절대 형태를 그



리는 거죠.

자료2



- ① [가] : 자연 속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빛을 표현한다.
- ② [나] : 그림에 사용된 색을 통해 빛의 표현이 이루어진다.
- ③ [다] : 빛이 한편에서 들어오면 반대편을 그늘지게 해 입체감을 표현한다.
- ④ [라] : 극도로 사실적인 빛의 표현이 이루어진다.
- ⑤ [마] : 외부 광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림 자체가 빛을 발산한다.

119 <보기>의 ㉠~㉤ 중, ㉠이 가리키는 바와 유사한 것은?

보기

감상의 과정은 주체와 주체의 ㉠ 대화이다. 감상 과정에서 예술 작품과 감상자는 서로 다른 관점과 개성을 지닌 두 명의 개인과 마찬가지로 묻고 대답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교정해 가는 개방적 태도를 갖는다. 자신의 세계 속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 진리로 나아간다. 감상자는 ㉢ 예술 작품 속에 존재하는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대화 방식의 감상을 통해 예술 작품과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 낸다. ㉣ 외재하는 예술 작품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던 이전의 이해를 초월시킴으로써 새로운 ㉤ 시야를 획득한다.

- ① ㉠

- ② ㉑
- ③ ㉒
- ④ ㉓
- ⑤ ㉔

120 [서술형] [다]~[마]를 참고하여 모네가 자신의 작품에서 자연을 포착하는 방식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물이 되어
강은교
 우리가 ㉑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㉒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㉓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숯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121. ㉑, ㉒와 같은 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질할지니 //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 ② 누가 와서 나를 부르다면
 내 보여주리라
 저 얼은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얼은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지금까지 내 생각해 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친구 몇몇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게 내 것 가운데 그 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주게 되리
 오랫동안 네 여머운 고의춤에 남은 것은 무
 엇인가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햇빛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달빛.
 - 황동규, 달밤
- ③ 흔들리지 않은 갈대가 되리
 겨울강 강언덕에 눈보라 몰아쳐도
 눈보라에 으스스 내 몸이 쓰러져도
 흔들리지 않은 갈대가 되리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강물은 흘러가 흐느끼지 않아도
 끝끝내 흔들리지 않은 갈대가 되어

125. ㉠과 그 의미가 유사한 시어를 모두 찾아 쓰시오.

<보기>

향단(香丹)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올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波濤)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물이 되어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별써 숲이 된 뺨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126. ㉠~㉥ 중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기>

부정적인 현실에 당한 존재로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지니고 있음.

① ㉠ ② ㉡ ③ ㉢ ④ ㉣ ⑤ ㉤

127. 위 시(A)와 <보기>(B)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물'과 '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아아 날이 저문다. 서편(西便) 하늘에, 외로운 강(江) 물 우에, 스러져 가는 분홍빛 놀…… 아아 해가 저물면, 날마다 살구나무 그늘에 혼자 우는 밤이 또 오건마는, 오늘은, 사월(四月)이라 파일 날 큰 길을 물밀어 가는 사람 소리는 듣기만 하여도 흥성스러운 것을, 왜 나만 혼자 가슴에 눈물을 참을 수 없는 고?

아아 춤을 춘다. 춤을 춘다. 싯벌건 불덩이가 춤을 춘다. 잠잠한 성문(城門) 우에서 내려다 보니, 물 냄새 모래 냄새, 밤을 깨물고 하늘을 깨무는 햇불이 그래도 무엇이 부족하여 제 몸까지 물고 뜯을 때, 혼자서 어두운 가슴 품은 젊은 사람은, 과거(過去)의 퍼런 꿈을 찬 강물 우에 내어 던지나. 무정(無情)한 물결이 그 그림자를 멈출 리 있으랴?…… 아아 꺾어서 시들지 않은 꽃도 없건마는, 가신 님 생각에 살아도 죽은 이 마음이야, 에라 모르겠다. 저 불길로

이 가슴 태워 버릴까, 이 설움 살라 버릴까, 어제도
아픈 발 끌면서 가 보았더니 겨울에 말랐던 꽃이 피
었더라만은 사랑의 봄은 또 다시 안 돌아 오는가.
차라리 속 시원히 오늘 밤 이 물 속에……할 적에
통, 탕, 불티를 날리면서 튀어나는 매화포. 펄떡 정
신을 차리니, 우구구 떠드는 구경꾼 소리가 저를 비
웃는 듯, 꾸짖는 듯, 아아 좀더 강렬(強烈)한 정열에
살고 싶다. 저기 저 햇불처럼 영키는 연기(煙氣), 숨
막히는 고통 속에서라도 더욱 뜨거운 삶을 살고 싶
다고 뜻밖에 가슴 두근거리는 것은 나의 마음……

- 주요한, 불놀이

- ① A와 B의 ‘물’은 모두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로 등장한다.
- ② A의 ‘물’과 B의 ‘불’은 모두 의지를 환기시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 ③ A의 ‘물’은 삶의 고독을 가중시키는 존재로, B의 ‘물’은
재생의 원천으로 나타난다.
- ④ A의 ‘물’은 파괴의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로, B의 ‘물’은
사랑의 이미지를 지닌다.
- ⑤ A의 ‘불’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모든 부정적 현상을,
B의 ‘불’은 현실적 세계를 나타낸다.

128. 위 시에 대한 감상의 관점이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이 시를 읽고 모든 사람과 물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
다는 생각을 했어.
- ② 이 시의 발표 당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
태를 감안해 볼 때 삭막한 도시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
어.
- ③ 이 시는 가정법을 사용하여 현재와 대비되는 미래를 지향
한다는 것을 살필 수 있어.
- ④ 시인의 초기시는 허무를 주제로 한 반면 점차 공동체적
삶에 관심을 넓혀 간 것으로 보아 이 시는 후기시에 해당
될 거야.
- ⑤ 시를 감상한 후 평화로운 화해와 공존의 세상을 만들어가
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어.

129. <보기> 시는 ㉠에서 말하고자 하는 현대 사회의 모 습을 반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밑줄 친 것 중, (가) 시의 ‘그대’가 처해 있는 고통스런 삶의 현실을 비유 적이고 함축적으로 나타낸 시구끼리 묶은 것은?

<보기>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
택을 지나갈 때 /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

㉠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
도 모른다. /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 ㉡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
들과 /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 고개를 끄덕여 다오. / ㉢ 농약으로 질식
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 시야 방송이 잠든 뒤의 / 전파
소리 같은 /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 ㉣ 고속도로를 달
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 놀라
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 다오. /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 침묵이 어색할 때는 / ㉤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 이야기해 다오.
/ 너를 위하여 / 나를 위하여.

- <상행>, 김광규

- | | | |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130.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시구가 들어있는 시행을 찾아 쓰시오. (4어 절, 1행으로 답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 별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④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131.<보기> 중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만 묶인 것은?

<보기>

- ㉠ 일상적인 시어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 역설적 표현 방식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 상반된 이미지를 가진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
- ④ ㉠, ㉢, ㉣ ⑤ ㉡, ㉢, ㉣

132.㉠에서 드러나는 시적 분위기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물 먹는 소 목달미에 /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 이 하루도 / 함께 지났다고, /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 서로 적막하다고, -김종삼, <묵화(墨畵)>
- ②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 흔들어 깨우면 /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이성부, <봄>
- ③ 산자락 덮고 잔들 / 산이겠느냐. / 산 그늘 지고 산들 / 산이겠느냐. / 산이 산인들 또 어찌겠느냐. -오세영, <겨울 노래>
- ④ 어느 날 불현듯 / 물 묻은 저녁 세상에 낮게 엎드려 / 물 끄러미 팔을 뻗어 너를 가늠할 때 / 너는 어느 시간의 흙속에 / 아득히 묻혀 있느냐 -기형도, <식목제(植木祭)>
- ⑤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 한 며칠 놀렀다가 / 벽에 걸어 놓고 바라본다. / 흰 하늘과 꾸그런 아낙네 둘이 /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김혜순,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133.㉠~㉣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비, 강물, 바다로 이어지는 재생과 정화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 ② ㉡: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로 척박한 현실의 모습을 나타

낸다.

- ③ ㉢: 화자가 꺼려하는 곳으로 비정하고 고독한 공간에 해당한다.
- ④ ㉣: 조화와 합일을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희망과 의지를 나타낸다.
- ⑤ ㉤: 모든 인간적 고뇌가 사라진 정신적 경지나 이상적 세계를 상징한다.

134.<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어를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보기>

생명력을 상실하게 하는 파괴와 소멸의 이미지를 지님

135.위 시와 <보기>의 공통점을 2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보기>

청산(靑山)은 엇데헛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엇데헛야 주야(晝夜)애 굶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호리라.

136.다음 중 이 시의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 ① 나 돌아가는 날 / 너는 와서 살아라// 목은 순터 / 새 순돈듯// 허구많은 자연 중 / 너는 이 근처 와 살아라
- ② 사랑하는 이여 /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 ③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 기슭에 앉아 /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 ④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 이 넓디넓은 사랑, /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 이 피 묻은 그리움, / 이 넉넉한 힘...
- 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 날과 씨로 만나서 /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 우리들의 꿈이 만나 / 한 쪽의 비단이 된다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나) 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天命)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詩)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 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늪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澣)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詩)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137.(가) 시에 대한 감상의 관점이 다른 학생은?

- ① 윤아 : 시인이 생각하는 1980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은 그리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나봐.
- ② 태연 : 이 시의 화자는 물이 되어 만나고 싶은 바람을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어.
- ③ 수영 : 나는 이 시를 읽고 메마른 사회와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서 안 타까웠어.
- ④ 유리 :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으로 대표되는 '불'의 이미지를 통해 나도 불로 만나기보다 물로 만나는 삶을 지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 ⑤ 서현 : 시인은 허무의식을 통하여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던 초기의 시에서 점차 민중적이며 현실적인 시각에서 시를 발전시켜 나간 과정을 살펴볼 때, 이 시는 후기 시에 해당될 거야.

138.(가) 시 [A] 와 <보기> [B]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한 것은?

<보기>

얼음을 깬다.
강에는 얼은 물
꽤수룩 청청한
소리가 난다.

강이여 우리가 이를 수 없어
 물은 남몰래 소리를 이루었나.
 이 강을 이루는 물소리가
 겨울에 죽은 땅의 목청을 트고
 이 나라의 어린 아희들아
 물은 또한 이 땅의 풀잎에도 운다.
 얼음을 깬다.
 얼음을 깨서 물을 마신다.
 우리가 스스로 흐르는 강을 이루고
 물이 제 소리를 이를 때까지
 아희들아.

- 정희성, 얼은 강을 건너며

- ① A와 B 모두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의지가 드러난다.
- ② A와 B 모두 의성어를 사용하여 시어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③ A와 달리 B는 화자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B와 달리 A는 표현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 ⑤ B와 달리 A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39.<보기>는 (가) 시에 대한 비평문이다. 비평문의 내용 중 시와 관련이 없는 표현을 찾고 그 이유를 쓰시오.

<보기>

㉠화자는 풍요롭고 부드러운 '물'로 만나고 싶어 하지만, 현재의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불은 파괴적이며 가혹하다. ㉢물이 부드럽게 포용하며 유연하게 흐르는 데 반해, 불의 강렬한 에너지는 '숯으로 남은 뼈'의 잔해를 남긴다. ㉣불이 사라진 뒤의 고요한 세상을 흐르는 물은 맑고 깨끗한 심상을 지니고 있다. ㉤세상의 불의한 것을 불이 모두 없애 버린 뒤, 새로운 창조를 기약한다.

140.(가) 시와 <보기>의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

<보기>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동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 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141.(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 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반성하고 있다.
- ② 현대 사회의 메마른 인간 관계에 회의(懷疑)하고 있다.
- ③ 부정적 현실 인식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외부 상황을 수용함으로써 내적 성장의 계기로 삼고 있다.
- ⑤ 동경하던 세계에 좌절로 현재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142.<보기>의 빈칸에 해당하는 시어를 (가)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 : '나'와 '그대'를 '우리'로 만나게 하는 매개체이며, '가뭄'으로 상징되는 삶의 고독을 해소시키는 소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숯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143.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성어를 통해 상반된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대립적인 이미지의 시어를 배치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의 시어로 대상을 인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⑤ 가정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의 절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144.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자신의 바람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 ② 화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의 세계를 꿈꾸며 그리워한다.
- ③ 바람직하지 않은 삶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 ④ 모든 생명은 결국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⑤ 부정적 현실에 대한 초월적이고 달관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다.

145.㉠와 <보기>의 ㉡를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에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신 입을 어이할꼬.

- ① ㉠는 생명의 의미로, ㉡는 죽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는 상승의 이미지를, ㉡는 하강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 ③ ㉠는 시적 대상을, ㉡는 화자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다.
- ④ ㉠는 불변적인 존재로, ㉡는 가변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 ⑤ ㉠와 ㉡는 모두 화자와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146.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를 의미하는 시구를 찾아 3어절로 쓰시오.

147.㉠의 의미를 <보기1>과 같이 정리하였을 때, ㉠과 시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시어를 <보기2>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1>

위 시의 '부끄러운 바다'는 순수함과 깨끗함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다.

<보기2>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148.밑줄 친 시어 중 이 시의 '물'의 이미지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 일이 끝나 저물어 /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 나는 돌아갈 뿐이다.
- ② 남국(南國)을 향한 불타는 향수(鄉愁), / 너의 님은 수녀(修女)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情熱)의 여인(女人), /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 ③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 가을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날을 기러기가 /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 두고 / 더러는 잎새
에 살아서 튀는 물방울 같이 / 그렇게 만나는 것을

- ④ **폭포**는 곧은 절벽(絶壁)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
다.// 규정(規定)할 수 없는 물결이 / 무엇을 향(向)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 계절(季節)과 주야(晝夜)를 가
리지 않고 / 고매한 정신(精神)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
다.
- ⑤ 이 **비** 그치면 /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 서러운 풀빛
이 짙어 오겠다.// 푸르른 보리밭 길 / 맑은 하늘에 / 중
달새만 무에라고 지껄이겠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④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별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149. 위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있다.
② 화자는 현실과는 다른 이상향을 설정하여 의지를 드러내

고 있다.

- ③ 화자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며 부정적인 미래
를 예언한다.
④ 화자는 부정적 현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인 '그대'
를 기다리고 있다.
⑤ 화자는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만나고 싶어 한다.

150. 위 시에서 밑줄 친 ㉠“부끄러운 바다”의 상징적 의미
와 유사한 것은?

- ① 가문 어느 집 ② 깊어지는 강물
③ 죽은 나무 뿌리 ④ 숲이 된 뼈 하나
⑤ 넓고 깨끗한 하늘

151. ㉡과 <보기>의 밑줄 친 시어의 의미를 비교하여 50
자 내외로 서술하십시오.

<보기>

비 갠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르네,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152.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
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 시어의 대비적인 속성을 통해 주제 의식을 표현하였다.
㉡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다.
㉢ 청유형, 명령형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바람을 드러낸다.
㉣ 반복적인 표현으로 소망을 강조하며, 만남의 절실함을 나타
낸다.
㉤ 가정법을 사용하여 현실을 인내하며 종교적으로 승화하여
극복하려 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153. ㉡의 의미를 쓰고, <보기>의 시에서 ㉡의 의미와 가
장 유사한 시어를 찾아 쓰시오.

<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꽃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 유치환, 깃발

154. 다음 중, 위 시와 <보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 동일한 관점을 적용한 두 개를 고르시오.

<보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에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꽃, 김춘수

- ① 위 시의 ‘가문 어느 집’이나 ‘죽은 나무뿌리’는 메마르고 황폐한 현대사회를 드러내기 위한 비유이다.
- ② 위 시에 사용된 가정법 어조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소망과 주제를 강하게 감지하게 한다.
- ③ <보기>는 존재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다.
- ④ <보기>의 ‘그’는 ‘몸짓’, ‘꽃’, ‘눈짓’으로 점층적인 의미의 확대를 보여준다.
- ⑤ 위 시와 <보기>는 관념적인 주제를 구체적인 상징을 통해 드러내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1) [정답] ②
 [해설] '음운'은 뜻을 구별하는 최소단위[①]로,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거나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음운의 변동' 또는 '음운의 현상'이라 한다[②]. 국어의 음운 현상은 매우 자연스럽고 규칙적이기에[③],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잘 의식하지 못한다[⑤]. '음운'의 개수는 자음 19개, 모음 21개로 총 40개이다[④].
- 2) [정답] ④
 [해설] '뵤다[뵤따]'만 겹받침이 [ㅂ] 발음이 나고, ① 넓다[널따], ② 핥다[할따], ③ 맑게[말게], ⑤ 뭉고[물꼬]는 모두 [ㄹ]로 발음된다. '뵤-'의 '뵤'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한다.
- 3) [정답] ①
 [해설] '효과'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효:과]로 발음한다.
- 4) [정답] ⑤
 [해설] '곤란[골란]'은 유음화 현상이 나타나고, ① 국물[궁물], ② 맞는[만는], ③ 먹는[멍는], ④ 담력[담녁]은 모두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다.
- 5) [정답] ⑤
 [해설] '스,쓰,즈,츠,트'은 종성에 올 때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표'는 [ㅂ]으로 발음된다.
- 6) [정답] ①
 [해설] <보기>는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①의 '논일[논닐]'은 'ㄴ' 음이 첨가되는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난다. ② ③은 두음법칙이, ④ 꽃밭[꼇밭]과 ⑤ 옷장[옇장]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경음화 현상이 함께 나타난다.
- 7) [정답] ④
 [해설] '노랗다'는 [노라타]로 발음되며, 자음축약이 나타난다.
- 8) [정답] ㄷ, ㅌ, ㅍ, ㅈ, ㅊ
 [해설] 구개음화는 교체현상으로 혀끝소리 'ㄷ, ㅌ'이 'ㅣ'나 반모음 앞에서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 9) [정답] ②
 [해설] '빌려[빌리어]'는 모음 축약이다. ①③⑤는 'ㄹ'탈락, ④는 'ㄷ'탈락이다.
- 10) [정답] ③
 [해설] 모음조화는 훈민정음 창제 시에는 엄격히 지켜졌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강충강충', '아름다웠다'처럼 파괴된 예가 많이 나타난다.
- 11) [정답] ③
 [해설] ③의 '점잖은'은 발음 시 'ㅎ'이 탈락되는 탈락현상이다. 교체 현상이 일어난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구개음화' 등이다. ① 구개음화, ② 비음화, ④ 경음화, ⑤ 유음화
- 12) [정답] '국물'은 파열음 'ㄱ'이 비음인 'ㄹ'앞에서 'ㅇ'으

- 로 변한 비음화 현상이다.
 [해설] 비음화는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인 'ㄹ'앞에서 각각 'ㅇ, ㄴ, ㄹ'으로 변하는 음운 현상이다.
- 13) [정답] ①
 [해설] 경음화는 관형형 어미 '-(으)ㄴ'이 아닌 '-(으)ㄹ' 뒤에서 나타난다.
- 14) [정답] ⑤
 [해설]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물'은 '열, 울'로 적는다. 그러므로 '백분율'로 써야 한다.
- 15) [정답] ③
 [해설] ③의 '꽃잎[꼇닙]'과 '훗일[훈닐]'은 모두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난다. ① '꽃이[꼬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이[가치]'는 구개음화, ② '놓고[노꼬]'는 자음축약, '봐서[보아서]'는 모음축약, ④ '노인(老人)'은 두음법칙, '논리[놀리]'는 비음화, ⑤ '숫자'는 사잇소리 현상, '부삽(불삽)'은 자음탈락이다.
- 16) [정답] ④
 [해설] 자음 축약은 'ㄱ, ㄷ, ㅂ, ㅈ'과 'ㅎ'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 17) [정답] ⑤
 [해설] ㉠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은 축약이다. ① [국뺨]은 경음화, ② [점자는]은 탈락, ③ '바늘+질→바느질'로 탈락, ④ [콩년]은 ㄴ첨가이다.
- 18) [정답] ⑤
 [해설] 명사가 결합하여 복합어가 될 때 경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복합어가 만들어질 때 언제 경음화가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지 않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았다. '김밥'의 경우 [김:밥]이 표준발음이다.
- 19) [정답] 모음 조화
 [해설]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음운 현상을 모음 조화라고 한다.
- 20) [정답] ②
 [해설] ㉠ 'ㄴ'첨가, ㉡ 'ㄹ'탈락, ㉢ 축약, ㉣ 두음 법칙, ㉤ 'ㅎ'탈락
- 21) [정답] ㉠ [뵤따], ㉡ [넙똥글다], ㉢ [널따], ㉣ [달치]
 [해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 겹받침 '래, ㄹ, ㄹ, ㄹ'은 대표음 [ㄹ]로 발음된다. 예외로 '뵤-'의 '래'은 자음 앞에서 [ㅂ]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넙-'의 '래'은 파생어나 합성어에 '넙'으로 표기된 경우 [ㅂ]으로 발음한다.
- 22) [정답] ②
 [해설] ㉠ 탈락, ㉡ 두음법칙, ㉢ 경음화, ㉣ 탈락, ㉤ 축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같은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과 ㉤이다.
- 23) [정답] ④
 [해설] 물약 [물낙('ㄴ'첨가)→물락(유음화)] 'ㄴ'첨가에 대한 규정은 ㉢, 유음화에 대한 규정은 ㉤이다.

- 24) [정답] ⑤
[해설] ㉠ 절약하고 [저라카고], ㉡ 학교 [학교], ㉢ 끊기다 [끈
키다], ㉣ 묻히거나 [무치거나] 가 표준 발음이다.
- 25) [정답] ④
[해설] ㉠ 좋다 [조타] : ㅇ+ㄷ→ㅌ : 축약, ㉡ 빛나지 [빈나지 -
빈나지] :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화 : 교체, ㉢ 낫이 [녁씨] :
음절 끝소리 규칙, 경음화 : 교체, ㉣ 젓고 [전꼬] : 음절 끝소리
규칙, 경음화 : 교체, ㉤ 들었던 [드런뎌] : 음절끝소리 규칙, 경
음화 : 교체
- 26) [정답] ㄷ, ㅌ, ㅈ, ㅊ
[해설] 구개음화는 ‘ㄷ, ㅌ’이 ‘ㅣ’모음 앞에서 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27) [정답] ③
[해설] 얹고 [열:꼬], 훌이불 [훈니불], 효과 [효과], 고가도로
[고가도로] 가 표준발음이다.
- 28) [정답] ④
[해설] 경음화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 ‘ㄱ, ㄷ,
ㅂ, ㅅ, ㅈ’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이다. ④의 교과서 [교과서]
로 발음하는 것이 바르다. 국수 [국쑤], 갈수록 [갈쑤룩], 감
고 [감꼬], 물소리 [물쏘리]
- 29) [정답] ⑤
[해설] ① 와서 : 오+아서 : 축약, ② 빨강계 [빨가계] : 축약, ③
향해 : 향하여 : 축약, ④ 낙하산 [나카산] : 축약, ⑤ 좋아서
[조아서] : ‘ㅎ’탈락
- 30) [정답] ④
[해설] 유음화는 ‘ㄴ’이 유음 ‘ㄹ’의 앞 또는 뒤에서 ‘ㄹ’로 바뀌는
현상이다. 광한루, 신라, 한라산 등이 그 예에 속한다.
- 31) [정답] ㉠ : ㄱ, ㄴ, ㄷ, ㄹ, ㅁ, ㅂ, ㅇ ㉡ : ㄴ ㉢ : ㄷ
[해설] 자음이 음절 끝소리로 올 때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자음만 발음되는 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 32) [정답] ⑤
[해설] 모음 조화는 용언의 어간 모음이 ‘ㅏ, ㅑ’일 때는 ‘아’형 어미
가 결합하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형 어미가 결합하는 현
상이다. ‘아름다웠다’는 어간 ‘아름답-’이 양성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형어미와 결합해야 하는데 어미 ‘-었-’(‘어’형 어미)이
결합하였다.
- 33) [정답] ④
[해설] 로마자 표기법에서 체언에서의 자음 축약(‘ㄱ, ㄷ, ㅂ, ㅈ’뒤에
‘ㅎ’이 와서 거센소리로 날 때)은 ‘ㅎ’을 밝혀 표기에 반영한다.
- 34) [정답] ③
[해설] ① 불고기는 ‘bulgogi’로, ②삼겹살은 ‘samgyeopsal’로, ④
김치는 ‘gimchi’로, ⑤빈대떡은 ‘bindaetteok’으로 표기한다.
- 35) [정답] ⑤
[해설] ①은 ‘파이팅’, ②는 ‘달러’, ③은 ‘탈런트’, ④는 ‘피자’로
적는다.

- 36) [정답] ‘ㅍ, ㅂ, ㅅ, ㄷ, ㅈ, 시, 어, 오, 웅’
[해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외래어를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지
않고 한글 자모 24자만을 사용하여 적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래서 우리말에 없는 [f, v, θ, ð, z, j, ʌ, ɔ, ɔ̃]은 각각 [ㅍ, ㅂ,
ㅅ, ㄷ, ㅈ, 시, 어, 오, 웅]으로 적는다.
- 37) [정답] ③
[해설] 로마자 표기법에서 모음 ‘ㅛ’는 ‘oe’로 표기한다.
- 38) [정답] ②
[해설] ①청계천은 ‘Cheonggyecheon’, ③강변북로는
‘Gangbyeonbungno’, ④강남대로는 ‘Gangnam-daero’, ⑤여
의도는 ‘Yeouido’로 표기해야 한다.
- 39) [정답] ④
[해설] 이중모음 [auə]는 ‘아워’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tower[tauə]는 ‘타워’로 적는다.
- 40) [정답] ②
[해설] 외래어 표기법에서 파열음 표기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카페’는 ‘카페’로 써야 옳다.
- 41) [정답] ④
[해설] ‘저’는 ‘wo’로 표기하므로, ‘수원’은 ‘Suwon’으로 표기해야
맞다.
- 42) [정답] ①
- 43) [정답] ①
[해설]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로서, 오래
전에 들어온 ‘빵’이나 ‘담배’처럼 우리말과 구별이 쉽지 않은 단
어들도 있으며 외국어처럼 쉽게 순화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또
한 발음을 한글로 그대로 적기는 각기 언어의 고유 발음의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44) [정답] ②
[해설] [j]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 어말에서는 ‘시’로
적는다. 그러므로 ‘브러시’로 사용해야 한다.
- 45) [정답] ②
[해설]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
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46) [정답] Daehanminguk Dokdo
- 47) [정답] ③
[해설] [p, t, k] 소리가 이중 모음이나 장모음 다음에 오면 ‘-’를
붙여 ‘프, 트, 크’로 표기한다. ①주니어, ②패밀리, ④플루트,
⑤재즈가 맞는 표기이다.
- 48) [정답] ④
[해설] 외래어 표기법은 자주 쓰이는 외국어를 우리말의 언어 체계
와 우리의 언어생활에 걸맞게 표기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49) [정답] 이미 굳어져 쓰고 있는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
하여 표기한다.

- [해설] 'banana', 'camera', 'radio'의 본래 발음은 '버내너', '캐머러', '래디오'에 가깝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보통 '바나나', '카메라', '라디오'로 적고 있다. 이처럼 이미 굳어져 쓰고 있는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여 표기한다.
- 50) [정답] ③
[해설] 'flute [flú:t]'는 [t] 발음이 장모음 다음에서 소리 나는 것으로 'ㅡ'를 붙여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플루트'로 표기해야 한다.
- 51) [정답] ④
[해설] '안전벨트'는 우리가 흔히 잘못 표기하고 있는 예로 '안전벨트'가 바른 표기다.
- 52) [정답] ①
[해설] ㉠ '주니어'는 'ㅈ, ㅊ' 소리 뒤에는 이중 모음으로 적지 않는다, ㉡ '타월' [tauəl]은 [auə]는 '아워'로 적는다, ㉢ '타입'은 받침의 표기는 실제 발음되는 소리들을 적어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한다.
- 53) [정답] ④
[해설] 전자법은 한글 표기 그대로 로마자 표기가 되기 때문에 표기에 혼동이 적다. 다만 외국인이 읽었을 때 발음을 우리말과 비슷하게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 54) [정답] ①
[해설] 'thrill [θrɪl]'와 같이 우리말에 없는 음운 [θ]은 'ㅅ'으로 적는다.
- 55) [정답]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인들이 아닌 우리말 사용자를 위한 것으로,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인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해야 할 때 통일성 있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설] 외래어는 이미 국어의 범주에 들어온 것으로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인들을 위한 표기법이 아니라 우리말 사용자를 위한 것이다. 언어마다 다르게 표기하는 외래어를 적을 때 혼란스러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래어 표기법이 제정되었다.
- 56) [정답] ⑤
[해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Jeonrapuk-do'로 써야 한다.
- 57) [정답] ②
[해설] 빼지 → 배지, 캐를 → 캐럴, 악세사리 → 액세서리로 써야 바른 표기이다.
- 58) [정답] 'ㅈ, ㅊ'뒤에는 이중 모음을 적지 않고 단모음으로 적는다.
[해설] 우리말에서 'ㅈ, ㅊ' 소리 뒤에는 이중 모음이 와도 단모음과 발음상 구별되지 않는다. 때문에 외래어를 표기할 때 'ㅈ, ㅊ' 뒤에는 이중 모음을 적지 않고 단모음으로 표기한다.
- 59) [정답] ③
[해설] ① 데뷰 → 데뷔, ② 스태프 → 스테프, ④ 코메디 → 코미디, ⑤ 포탈 사이트 → 포털 사이트
- 60) [정답] ⑤

- [해설] <보기>는 우리말을 발음되는 대로 로마자로 적는 전음법에 대한 비판이다. 전음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⑤ '학여울 - Hageyoul'로 표기 그대로 옮겨 적었다. 전음법을 사용한 표기는 'Hangnyeoul'이다.
- 61) [정답] ④
[해설] 'talent [tələnt]'는 무성 파열음 [t]는 'ㄷ'으로, [æ]를 'ㅐ'로, [l] 발음은 모음 앞에서 'ㄹ'로 적어야 한다.
- 62) [정답] ⑤
[해설] 'robot'을 '로봇'으로 표기하는 것은 영어의 [p, t, k]는 단어의 끝이나 자음 앞에 오면 받침 'ㅂ, ㅅ, ㄱ'으로 적거나, 'ㅡ'를 붙여 'ㅍ, ㅌ, ㅋ'로 적는다는 규정과 관련이 있다.
- 63) [정답] ③
[해설] ㉠ 프로포즈 → 포러포즈, ㉡ 벤취 → 벤치, ㉢ 컨셉 → 콘셉트
- 64) [정답] ②
[해설] '압구정' [압꾸정]으로 발음되지만 외래어 표기에서 된소리로 나는 것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Appujeong으로 적어야 한다.
- 65) [정답] ④
[해설] 황수건이 사용하는 방언은 '사회 방언'이다. 그의 방언은 '나'와는 다른 계층적 차이를 나타내준다.
- 66) [정답] ⑤
[해설] ㉢은 포도를 훔친 사실을 들켜 부끄러워 도망친 것이지 황수건의 성격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에서는 앞뒤 따지지 않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성격이, ㉢㉣에서는 어수룩해 보이지만 순박한 성격이 드러난다.
- 67) [정답] 못난이
[해설] (가)에서 서술자 '나'는 황수건을 '못난이'로 단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로 인해 성복동이 시골임을 느낀다고 서술하고 있다.
- 68) [정답] ①
[해설] 이 작품은 소설의 구성요소인 '갈등'보다는 인물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에 초점을 두어 전개하는 특징이 있다.
- 69) [정답] ⑤
[해설] 서술자는 황수건을 연민과 동정, 온정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한다. 그러나 무조건 그의 말을 동조하는지는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 70) [정답] ③
[해설] '다섯 송이의 포도'는 비록 황수건이 돈을 치르지 않고 훔쳐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따뜻하고 순박한 인정이 담겨 있는 소재이다.
- 71) [정답] ⑤
[해설] '달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인 '나'가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관찰하며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⑤의 <여승>도 시적화자인 '나'가 관찰자적 입장에서 여승의 비극적인 생애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72) [정답] ⑤
[해설] 황수건은 소박한 꿈을 키워가며 사는 어수룩하며 순박한 인물이지,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거나 성실하게 사는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
- 73) [정답] ②
[해설] (마)는 '달밤'이라는 배경이 황수건의 가슴 아픈 사연과 어우러져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 74) [정답] ⑤
[해설] 참외와 포도는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움의 표시이자 순박한 인정이 담긴 소재이다. 황수건의 어수룩한 성격을 드러내는 소재는 아니다.
- 75) [정답] ③
[해설] '달밤'의 배경은 아내를 잃은 황수건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드러내며 그의 비극적인 삶을 부각시키면서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 76) [정답] '나'는 표준어와 한자어를 사용하며 '하오'체의 말투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하지만, '황수건'은 비속어와 비표준어를 사용하며 '-니쇼'의 굽신거리는 듯한 말투인 사회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두 인물은 서로 다른 계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정을 바탕으로 한 인간적인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은 없다.
[해설] 서로 다른 사회 계층의 인물들이 상이한 사회 방언을 사용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교감으로 소통하고 있다.
- 77) [정답] ⑤
[해설] (다)에는 사건에 대한 요약적 제시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함께 황수건이 포도를 훔쳐 온 사건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작가의 직접적인 논평은 나타나 있지 않다.
- 78) [정답] 1. '제기' 등의 비속어를 사용한다. 2. '죄꼬만, 개와집' 등의 비표준어를 사용한다. 3. '댕입쇼, 껌쇼' 등의 굽신거리는 듯한 말투를 사용한다.
[해설] 황수건은 비속어와 비표준어를 사용하는 등 하층민의 사회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니쇼'의 굽신거리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 79) [정답] ②
[해설] (나)는 황수건에 얽힌 우스운 일화를 소개한 것이다. 따라서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성을 지닌 작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알미운 개'가 하는 행동을 해학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미워하여 밥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화자의 태도 또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80) [정답] ④
[해설] '나'는 보조 배달자리 마저 쫓겨난 황수건의 처지에 안타까워하며 황수건과 같은 못난이가 살아가기에는 각박한 세상에 야속함을 느끼고 있다.
- 81) [정답] ④
[해설] ㉠은 학생들에게 놀림감이 되면서도 그것을 자신이 좋아서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는 황수건의 순진함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황수건이 생각하는 것과 외부 평가의 차이를 드러내어 황수건이

라는 인물에 대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82) [정답] ①
[해설] '달밤'은 작품의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배경으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픔과 이에 대한 연민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애상적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①이다.
- 83) [정답] ⑤
[해설]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안에 존재하며 인물의 행동과 말에 대해 관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느낌이나 관점을 드러낸다.
- 84) [정답] ①
[해설] ㉠은 황수건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흠쳐서까지 가지고 올 정도로 '나'에 대한 정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것은 ①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상징하는 '육날 메투리'이다.
- 85) [정답] ②
[해설] '맨손'은 접사+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② 첫날밤은 어근+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86) [정답] ㉠ 사회 방언, ㉡ 하오체
[해설] 등장인물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 방언을 통해 인물의 계층 등을 유추해볼 수 있다. 황수건은 비속어와 합쇼체 등을 사용하여 하층민 계층의 인물임을 드러내고, '나'는 표준어를 사용하여 교양 있는 인물임과 동시에 '하오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87) [정답] ④
[해설] (나)에서는 두 인물 간의 소통이 그려지고 있는데 수건의 엉뚱한 이야기에 '나'가 귀를 기울여 주고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인간적 교감이 느껴지는 대화가 진행된다. 반면, <보기>에서는 영래 패거리의 일방적인 선언과 명령이 내려지고 있을 뿐 상호간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 <보기>의 구성원들은 폭력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는 것이지 동조의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88) [정답] ⑤
[해설] ㉠은 황수건의 가담찮은 말도 고맙다며 받아주는 '나'의 온정적인 태도가 드러난 부분으로, '나'의 어수룩함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아우를 위하여

- 89) [정답] ③
[해설] ③은 피카레스크식 구성에 해당하는 설명이다.(예: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오] ①형이 아우에게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②작품 속에 '나'가 등장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④부당한 권력인 영래네를 두려워하다가 정당하게 맞서면서 주인공은 의식의 성장을 한다. ⑤한 교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축소적으로 보여준다.
90) [정답] ⑤
[해설] '나'는 일찌감치 학교에 가서 그애의 자리에 도시락을 갖다 두었고, 그애가 먹은 도시락을 아무 말 없이 받아 넣어 집으로 가져갔다. [오] ①교생 선생님은 영래에게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두루 살

필 것을 조언하셨다. ②배고픈 친구들에게 도시락을 나눠 주는 일을 통해 학급 아이들은 한결 양순해졌다. ③‘나’는 교생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께 도시락을 두 개 싸 줄 것을 부탁했다. ④영래는 반 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말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91) 답 ⑤

해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을 두 개씩 싸오는 것을 제안하고, 영래의 잘못된 학급 운영을 지적하고 있다.

92) 답 ⑤

해 교생 선생님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도시락을 빼앗음)을 알면서도 이를 교육적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보며,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93) 답 반 친구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해 영래는 민주적인 절차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아이들을 참가시키려 하였다.

94) 답 ③

해 영래는 학급 아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95) 답 ④

해 <보기>의 화자는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다. 이 글의 교생 선생님 역시 영래에게 민주적인 학급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③은 교생 선생님의 친절한 마음 씀씀이가 나타난 것이고, ②는 반 친구들의 빈부 문제를 서로 도와주는 마음으로 해결하려는 교생 선생님의 태도를, ⑥는 급장의 올바른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96) 답 (1) × (2) ○ (3) ×

97) 답 영래

98) 답 ③

해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 서술자인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99) 답 ④

해 ‘나’를 비롯한 아이들이 서로 힘을 모아 저항해 영래 일당을 몰락시킬 수 있었다.

100) 답 ③

해 [수능에서 이렇게] 교실 안의 부당한 권력을 통해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을 그리고 있다.

101) 답 ⑤

해 영래는 아이들의 저항에 얼굴이 셋노랄게 질리고, 초라하게 풀이 죽는다. ㉠ 종하가 내 먹살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렸다. ㉡ 나는 종하에게 사과하라며 항의하고 있다. ㉢ 나는 교생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 대화한 적이 있다. ㉣ 반 아이들의 사과하라는 항의에 종하네는 사과하고 있다.

102) 답 ②

해 ‘나’는 종이 조각을 보고 영래 일당에게 저항하게 되고, 아이들은 ‘나’에 동조한다.

103) 답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며 지냈던 부끄러움(수치감)이 모두 해소되고 있다.

해 ‘미안하다’는 말에 ‘나’에게 있었던 수치감(부끄러움)이 모두 해소되고 있다.

104) 답 ④

해 ‘나’는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영래네에 저항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다. 또한, 노깡 속으로 다시 들어감으로써 노깡 속 어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극복한다.

105) 답 (1) × (2) ○ (3) ○ (4) ×

106) 답 노깡

빛의 마술사 - 모네와 고흐

107) 답 ①

해 이 글은 빛의 표현에 대한 특징을 모네와 고흐의 작품을 통해

대비적으로 쓰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빛은 작가가 작품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라는 진술이 이 글의 주장에 함의되어 있는 전제로 가장 타당하다.

108) 답 ③

해 이 글은 빛을 통해 바라본 모네와 고흐의 작품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모네는 자연광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고흐는 회화 속에 내재된 빛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은 ③이 적절하다.

109) 답 ②

해 이 글에서는 빛의 관점에서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과 고흐의 ‘해바라기’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110) 답 ④

해 모네가 종래의 그림처럼 원근법, 명암법, 균형 잡힌 구도, 이상화된 인물 등의 모습을 표현하였다고 추리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 ‘빛은 어떤가요? 뒤쪽에서 들어와 인물을 둘러싸고 있어서, 하늘과 같은 색으로 표현된 의상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인물 주변의 빛을 드러내기 위한 섬세한 배려를 통해 ‘빛’ 또한 그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소재의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찰나의 분위기를 통해 감탄스러운 자연의 한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모네의 그림은 카미유가 주인공인지 바람이 주인공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의 환한 자연광을 아름답게 그려 내고 있다. ㉣ ‘사람과 자연의 경계가 흐려져 옷과 풀, 얼굴, 하늘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11) 답 ①

해 자연광으로 포착되는 찰나의 분위기를 통해 감탄스러운 자연의 한순간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은 ①이다. ①은 모네의 ‘햇빛 속의 포플러’라는 작품이다. ㉡ 고흐의 그림으로 빛의 표현이 나타난다. 하지만 빛과 그림자의 사실적인 묘사가 아닌 별이 빛나는 밤을 환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샤갈의 그림으로 빛보다는 색채 표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 클림트의 그림으로 빛과 그림자의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 고흐의 그림으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만 보아도 물리적 실체로서의 빛의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12) 답 ⑤

해 ‘양산을 쓴 여인’에서 빛은 소재의 구체적인 형태가 아닌 찰나의 분위기를 표현하게 해 주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했다.

113) 답 ⑤

해 고흐는 빛의 사실적인 묘사 없이 환한 빛을 만들어 내고 있다. 즉 그림에 전체적으로 쓰인 노란색을 통해 빛을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영철’의 감상이 가장 적절하다.

114) 답 ①

해 고흐의 ‘해바라기’는 노란색이 발산하는 빛을 이용하여 해바라기를 그린 그림이다.

115) 답 ⑤

해 고흐는 ‘해바라기’에서 노란빛을 통해 사랑, 행복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했다. 따라서 열망, 열정의 의미는 이끌어 낼 수 있으나 순수의 의미를 끌어내기는 어렵다.

116) 답 ①

해 모네는 ‘양산을 쓴 여인’에서 찰나의 분위기와 자연광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흐는 ‘해바라기’에서 그림 자체가 발산하는 빛을 통해 마음속의 빛을 강조하고 있다.

117) 답 ④

해 고흐의 ‘해바라기’의 빛은 노란색이 발산하는 빛으로, 행복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다.

118) 답 ①

해 모네의 ‘양산을 쓴 여인’은 자연의 사실적 빛을 표현한 작품이다. ㉡ 고흐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므로 세 작품의 공통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고흐의 그림엔 사실적인 빛이 등장하

지 않는다. ④ 이재의 기림은 사실적인 빛이 아닌, 사물 자체의 튀어나오거나 오목하게 파인 부분에 따라 음영을 표현하므로 잘못된 내용이다. ⑤ 그림 자체가 빛을 발산하는 것은 고흐의 그림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119) [정답] ①

[해설] ㉠은 작가와 관객의 소통 및 감상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보기>의 '대화'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20) [정답] ㉡ 모네는 소재의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찰나의 분위기를 통해 감탄스러운 자연의 한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해설] 모네는 변화의 흐름 속 찰나의 분위기를 통해 자연을 포착하고 있다.

121) [정답] ④

[해설] 대립적인 시어 ㉠, ㉡와 관계가 없는 것은 ④이다. 유치환의 '생명의 서'에서 '나'는 가장 본질적인 나로 화자가 찾고자 하는 생명의 본질이다. '나'가 찾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 '그 원시 본연의 자태'다.

122) [정답] ⑤

[해설] '벽계수'는 시적 화자가 유혹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은 그 리워하는 대상과 합일되거나 지향하고자 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123) [정답] ④

124) [정답] ①

125) [정답] 바다, 하늘

[해설] ㉠은 순수한 존재이자 미지의 세계로 이상향을 의미한다. '추천사'에서 이상향을 상징하는 것은 '바다'와 '하늘'이다.

126) [정답] ④

[해설] ㉠의 표면적인 의미는 불로 인해 타 버린 존재이고, 그 상징적 의미는 부정적인 현실을 당한 존재로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지닌 것이다.

127) [정답] ②

[해설] A에서 '물'은 생명, 소생, 포용, 조화를 상징하고 '불'은 이와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반대로 B는 '물'이 소멸의 원천으로 '불'이 재생의 원천으로 의지를 환기시키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시어다.

128) [정답] ③

[해설] 작품 감상의 방법을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나눈다면 ③은 내재적 관점이고, 나머지는 외재적 관점에 해당한다.

129) [정답] ③

130) [정답]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131) [정답] ④

[해설] 이 시는 '물'과 '불'이라는 일상적인 시어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둘의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또 '우르르 우르르', '푸시시 푸시시'라는 의성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모순된 진술을 통해 시적 진실을 표현하는 역설법은 쓰이지 않았다.

132) [정답] ①

[해설] '숯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는 것에는 같은 고통을 겪은 대상에 대한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서 할머니가 소의 목덜미에 손을 얹

으며 오늘 하루도 함께 힘들고 적막하게 보냈다고 하는 데에서도 유사한 동병상련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133) [정답] ③

[해설] '부끄러운 바다'는 물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처녀에 비유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으로, 화자가 꺼려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 공간에 해당한다.

134) [정답] 불

[해설] 이 시에서 '불'은 '죽음, 파괴, 소멸'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해 주는 것이 '물'이라면, 세상을 더 매마르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불'이라고 할 수 있다.

135) [정답] 자연물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해설] 이 시는 '물', '키 큰 나무' 등과 같은 자연물에서 조화로운 삶이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있으며, <보기>는 '청산'과 '유수'를 통해 학문에 대한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 영원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136) [정답] ⑤

[해설] 이 시의 화자는 사람들 간의 조화와 합일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의 '당신'과 '내'가 만나 한 폭의 비단을 이루는 것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37) [정답] ②

[해설] 감상의 방법은 크게 내재적인 관점과 외재적인 관점으로 나뉠 수 있다. ㉠은 내재적인 관점이고, 나머지는 외재적인 관점에 속한다.

138) [정답] ①

[해설] A와 B는 모두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표현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미 혹은 소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139) [정답] ㉡, 세상의 불의한 것을 불이 모두 없애버린다는 표현은 옳지 않다. 또한 그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기약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불은 그 자신이 대결, 파괴, 소멸의 이미지로 세상을 불타게 하는 부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해설] 불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으로 삶의 절망을 가중시키는 존재다. 이러한 존재가 불의한 것을 없애 버린다는 것을 옳지 않다.

140) [정답] 이 시의 화자는 현재 처해 있는 잘못된 상황을 말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소망하며 극복 의지를 보여 준다. <보기>의 화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먼저 대상에게 다가가서 대상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애쓰고 있다.

141) [정답] ③

[해설] (가)의 화자는 '불'이 지난 뒤에 '물'로 만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 자기 성찰을 통해 '등불'로 대표되는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142) [정답] 물

[해설] 이 시에서 '물'은 소망의 세계를 상징하며 고립된 개체들을

‘우리’로 합일시키는 매개체이다. 이는 현실적 세계를 상징하는 ‘불’과 대립되는 것으로 생명, 소생의 힘, 포용, 조화 등을 나타낸다.

143) [정답] ④

[해설] 화자는 그대와 물이 되어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1연의 ‘좋아하지 않으랴’에서 설의 법이 쓰이긴 했지만, 묻고 답하는 형식은 쓰이지 않았다.

144) [정답] ③

[해설] 이 시의 화자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소멸시키는 ‘불’이 지나간 뒤에 인간과 인간이 ‘넓고 깨끗한 하늘’에서 ‘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145) [정답] ①

[해설] 이 시의 ‘물’은 죽은 나무의 뿌리를 적셔서 생명을 주는 존재로, 재생이나 생명력을 상징한다. 반면에 <보기>의 ‘물’은 입과 화자를 갈라놓는 공간이자 임이 죽은 곳으로, 죽음을 상징한다.

146) [정답] 넓고 깨끗한 하늘

[해설]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로, ‘관용, 순수, 포용’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완전한 합일과 충만한 생명력을 지닌 이상적 공간을 뜻한다.

147) [정답] 흰 나비

[해설] 이 시에서 ‘바다’는 아직 아무도 간 사람이 없는 순수한 곳을 상징한다. <보기>의 ‘흰 나비’도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를 상징한다.

148) [정답] ②

[해설] 이 시에서 ‘물’은 강인한 생명력, 재생의 이미지이다. ②에서 ‘샘물’은 파초를 되살리는 생명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149) [정답] ②

[해설] 화자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지금의 잘못된 상태를 극복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화자는 현실의 모습과는 다른 이상향을 설정하여 이를 통해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50) [정답] ⑤

[해설] ‘부끄러운 바다’는 순수함을 지닌 미지의 세상이자 이상향의 세계를 의미한다. 이는 화자가 오라고 하는 이상향의 세계인 ‘넓고 깨끗한 하늘’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151) [정답] ㉠은 생명을 불어넣고, 파괴의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라면, <보기>의 ‘대동강’은 대상과 화자가 이별하는 공간이다.

[해설] ㉠은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는 대상으로 고립된 개체들을 ‘우리’로 합일시키는 매개체이다. <보기>의 ‘대동강’은 화자와 ‘그대’가 헤어지는 이별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152) [정답] ②

[해설] 이 시는 ‘물’과 ‘불’의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153) [정답] ㉠의 의미 :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곳(이상향), 유사한 시어 : (푸른) 해원

[해설] ㉠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완전한 합일을 이루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다. 이러한 이상향의 공간은 <보기>의 시에서 ‘푸른 해원’으로 나타난다.

154) [정답] ④⑤

[해설] ④⑤는 내재적 관점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재적 관점이다. ①은 반영론적 관점, ②는 효용론적 관점, ③은 표현론적 관점에 해당한다.